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福祉 포퓰리즘 나라 망친다

정체권의 복지 논쟁이 치열하다. 제1야당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때아닌 복지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같은 복지논쟁은 2012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와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치르기까지 앞으로 남은 1, 2년 남짓 동안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문제는 민주당의 무상급식에 이른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 이른바 3무 1반값, '3+1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유권자의 표를 사려는 행위에 비유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주택과 교육 부문 등에 대한 복지 시리즈를 계속 내놓겠다고 공언, 복지 공약으로 결판을 내겠다는 자세이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며 이야말로 진짜 복지며 한나라당 등에서 주장하는 맞춤형 복지(선별적 복지)는 가짜 복지라고 기세를 올린다.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이분법적으로 억지 주장을 펼 이유가 없다.

무상급식에서 보듯 부자들은 가난한 계층이든 가리지 않고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는 것과 가난한 사람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선별적 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는 명약관화하다. 무상의료에는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무상 보육도 그렇다. 여기에 또 앞으로 새로운 부문의 복지 시리즈가 더해진다 면 그 소요 재정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어렵잡기 어렵다.

돈만 되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지금까지 나온 3+1복지정책만 하더라도 매년 수십조원의 추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에 비춰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상실해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게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현 가능성과 국가재정 파탄 여부를 떠나 무상 복지 시리즈를 내걸고 복지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까닭은 분명해 보인다. 내년 양대선거에서 어떻게든 승리, 정권을 잡고 보자는 의도때문이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누르고 승리하자 초 중 고등 학교 무상급식 공약이 주효했다(이보다는 한나라당의 민심이탈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이었다는 견해

도 많다)고 보고 내친 김에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아 사생결단 해보자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에는 정권을 잡으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더 진보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기류가 흐른다. 그리고 2012년 선거에서 정권을 잡지 못하면 2017년에도 못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면 영국의 대처 정권과 같이 보수집권의 장기화

深層진단



최희조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 중부대 초빙교수

정권 탈취 눈 어두워 '무상 시리즈' 남발
실현 가능성도 없고 국가재정 파탄 우려

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본다. 2012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란 정책의 동질성을 명분으로 진보정당의 복지동맹과 야권통합까지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도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복지 포퓰리즘은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3+1 복지'만의 추정 소요 재정을 보면 ▲무상급식 1조원 ▲무상의료 8조원 ▲무상보육 4조원 ▲반값 대학등록금 3조원, 모두 연간 16조원 가량이다. 의료계 등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보다 두배 또는 세배 이상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이들 돈을 증세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부자감세 철회, 세감면 축소, 건강보험 개혁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경제관료와 교수출신 의원들은 재원 마련 부분이 매우 부실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 "국민 부담이 따르지 않는 복지는 없다" "소비형 복지가 아닌 성장 친화형 복지로 가야한다"

을 수 있다. 우선 정권을 잡고 보자는 마당에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복지 논쟁에 있어서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사실(Fact)에 근거해 벌이는 선명 정책 논쟁이 아니라 거짓과 오류, 모순, 근거 없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건 기만과 선동 정책 논쟁이란 점이다. 예를 들면 이명박정부가 4대강 개발예산 때문에 2011년 정부 예산에서 복지 예산을 깎았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에 복지 예산 삭감 리스트가 나뉜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확인을 안 하고 이것을 마구 퍼날라다 사실인 양 주장한다. 미국 쇠고기 파동때 일부 세력이 퍼뜨린 광우병 조작 과장 허위 선동 수법과 똑같다. 올해 정부예산중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8%, 86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전년보다 5조원, 6.3% 늘어 전체 예산증가율 5.5%를 웃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개발비는 연년세세 들어가는 복지 예산과 다르다. 4대강 개발비보다는 세종시 건설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복지예산을 깎아먹는 문제의 예산이다. 세종시 건설로 정부 행정부처가 옮겨가면 두고두고 행정의 비효율성과 함께 유무형의 예산낭비가 클

것이라고 보아 다수의 국민이 그것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면에 4대강 개발은 그 자체로 주민 생활향상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무상 급식비만 하더라도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가 초 중등 학생 모두에게 적용,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서울시 편성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대표적 사례로 학교 신설, 교실 증축, 노후 교실 보수 등 교육 환경 개선비가 깎였다. 고령화 사회대비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비와 잦은 교통 안전사고로 귀중한 인명피해를 내는 양화대교 개선공사비도 전액 삭감됐다. 이것이 무상복지의 단적인 허상이다. 부자 가정 학생에까지 무료 급식하면서 예산을 깎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부자감세는 극력 반대하면서 부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건 모순이다. 유,무료급식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운운하는데 서울의 경우 이미 다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이나 일본도 아무런 문제 없

이 선별 급식을 하고 있다. 오래 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영국은 무상급식을 해오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근 선별 급식으로 돌아섰다.

'무상의료'라 하는데 실제로는 100% 무상이 아니다. 거짓이다.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간 소요자금 8조여원을 금융 및 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국고보조를 늘려 해결하겠다고 한다. 결국 세금 아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속내를 내보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주당 무상의료에는 연 8조원이 아니라 30조원이 더 필요하고 1인당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는 올려야 될 것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때 무상의료를 시험하다 좌절하고 혼쭐난 적이 있다. 노 정부때 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씨는 퇴임후 낸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상의료를 하지는 건 세상물정 모르는 터무니 없는 구상이며 국가 전체로 보면 무상의료란 존재할 수 없다. 환자에겐 무상이지만 누군가 그 비용을 내야한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친목-출판사업 확대…會友참여 活性化”

大韓言論人會 제25차 정기총회

대한언론인회 제25차 정기총회가 1월 2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여명의 회원(위임 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홍원기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수행 하거나 변화를 시도했다고 말하고 통상적인 회원복지증진 사업 이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언론인물사화’를 발행, 출판기념회를 갖고 대한언론상 시상도 송년회 때 부수적으로 시상하던 제도를 바꿔 별도로 시상해 주목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또한 기금이자에만 의존 하던 본회 운영도 광고 기획사 운영 등으로 수입증대를 꾀해 회보발간재원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지난 1년을 회고하고 올해는 더욱 활기 있는 대한언론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총회는 이어 정운중 상임이사의 회무보고와 김호기 감사의 감사보고, 2010년도 결산,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한 승인 순으로 진행됐다. 금년도 예산은 총 1억 9,185만 여원(일반회계 108,523,245원, 특별회계 79,335,566원 사진인간애상 400만원)으로 통상적인 회원복지증진 사업이외에 여러 가지 신

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예산으로 편성됐다. 김호기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2010년도에 집행부가 긴축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회원 복지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회원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회를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운중 이사는 특히 201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면서 회원의 건강포럼과 아울러 특별 교양 강좌도 신설할 계획이며 작년도 한국언론인물사화 발간에 이어 올해는 예산지원을 받아 원로 회우들의 현역시절 취재비화를 엮어 출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회원들의 체력단련과 문화유적탐방 사업도 종전과 같이 봄가을로 나누어 실시하고 주요사업의 하나로 회원들의 각종저서를 한 자리에 모아 영구 진열 열람케 함으로써 회우들의 저술 의욕을 북돋우고 대한언론인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회는 시작에 앞서 순국선열과 먼저 가신 언론계 선배 특히 지난 해 유명을 달리한 9명의 회우 등에 대한 묵념을 올렸고 총회가 끝난 뒤에는 간단한 다과를 들면서 새해 덕담을 나눴다.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 제25차 정기총회. 홍원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원저술문고 설치

대한언론인회는 올해 주요 사업의 하나로 회원들의 각종출판물을 한 자리에 모아 영구 진열 열람케 함으로써 회우들의 저술 의욕을 북돋우고 대한언론인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가칭 ‘회원저술문고’를 본회 사무실에 설치한다. 회우저술문고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은 3월 1일자 회보에 실을 예정이다.

大韓言論 300호 기념 특별세미나 계획

대한언론인회는 오는 3월 1일자 회보 대한언론 지령 300호 기념으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언론이 각계로부터 단순히 친목단체의 회보로서가 아니라 정론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에 부응하는 한편 회보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무상복지 포퓰리즘 이대로 좋은가’(가제)를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다. 세부계획은 주제발표자와 토론자가 결정 되는데로 전화원에 공지할 예정이다.

‘실록 한국언론史’ 간행 예정

대한언론인회는 금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회우들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판할 계획이다. ‘실록 한국언론사’는 그동안 작고 언

론인을 대상으로 간행된 ‘한국언론인물사화’와는 달리 생존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엮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건경보험은 2010년에 1조3천억원 적자를 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2020년엔 건보 누적적자가 16조원에 이를 것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오래 전에 적자를 내기 시작해 매년 정부재정에서 돈을 대줘 연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지면사정으로 상세한 소개를 못하지만 그 실정을 들여다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분단국가로서 한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 군사대치를 하고 있는 특수 여건에 놓여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무차별 포격에서 보듯 무력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 방위예산이 만만치 않은 나라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복지지출, 국가안위에 관한 안보예산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할지 자명하다. 실례를 들어 업

명하다. 노인빈곤율이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 가장 높다. 그만큼 국민 노인층 복지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장애인들의 열악한 삶은 또 어떨까. 그런데도 진보 쪽에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평균 복지지출 국민 부담률(조세 + 사회보험료)이 28.7%로 OECD 평균 36.1%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란 거시적 총체적 사실만 강조한다. 이를 근거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복지 사각지대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보편적 복지는 대국민 기만이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 아닌 시대 역행적이다. 2010년 한 해만 보더라도 서유럽 각국이 국가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복지 등 재정을 감축하는 긴축 조치를 내리자 시민들 저항에 부딪쳐 몸살을 앓았다. 그리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교육예산 삭감, 대학등록금 인상, 퇴직연금 지급시점 늦추기 등으로 특히 학생들의 항의 시위 등 저항이 격심했다. 복지 재원은 조달 문제 뿐 아니라 가뜩이나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주요 원인을 제공해 세계 각국에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

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절대액 자체는 당장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그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건전재정 운영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나온 지 오래다.

한나라당의 ‘70% 복지정책’도 민주당의 무상복지와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포퓰리즘 성격을 안고 있어 문제라는 점에선 같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지원 등으로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그리고 방위예산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수준은 선진 복지국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선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드라이브 덕분이라고 긍정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회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조치를 당한 50대 독거 여인

이 난방을 위해 켜놓은 가스 폭발로 열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는게 현실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접한 사실이어서 예로 들었지만 복지 시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지 혜택이 절실하다. 물론 전체 국민복지 수준도 앞으로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다. 그러나 허울 좋은 설부른 복지 때문에 나라를 거덜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정권 쟁취를 위해 복지를 악용한다면 국가재앙을 불러온다.

정치권에서 복지문제와 같은 정책 대결을 한다는 자체는 정책의 오류, 모순, 허위, 기만성, 선동성을 제쳐 놓더라도 일용 긍정적일 수 있다. 이왕이면 진정성을 갖고 논쟁하고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수 정당은 보수답게, 진보 정당은 진보 다운,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선명 정책을 제시하고 경쟁을 하라는 주문이다. 최종 심판자인 유권자들이 만에 하나 속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각 정당은 정책다운 대결을 벌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복지천국은 유럽의 환상이었다”

무상급식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남유럽발(發) 재정위기의 진원지 그리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아테네 중심 산티그마 광장 주변에서는 경제 회생을 위한 고통스러운 개혁에 반발하는 공산당 시위가 열리고 있었다. 10월에는 그리스관광의 핵심인 아크로폴리스가 정부 계약직 직원의 파업으로 사흘간 폐쇄되기도 했다. 관광은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19%나 되는 최대산업이지만 관광객이 대접받는다는 느낌은 없었다.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 존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3년간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그리스의 현주소였다.

인류문명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그리스가 이런 국가부도의 상황에 빠진 것은 복지병 때문이다. 2009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3%로 유로지역 평균 80%보다 훨씬 높다. 그리스는 공공부문이 국가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다. ‘선박왕 오나시스’로 상징되는 선박업이 무너진 이후 이렇다할 제조업 기반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무역적자가 심하다. 무역적자가 민간부채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면서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다. 직종별로 155개나 되는 연금기금을 2008년 13개로 통합했지만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 국고에서 지원받다가 급기야 이웃나라에서 돈을 빌려 연금을 지급했다.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하나여서 하나가 부실해지면 다른 하나도 따라서 부실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스뿐만이 아니다. 포르투갈은 유

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실업급여가 가장 후하다. 이전 평균소득의 40% 이상을 실업급여로 지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도 새로 일을 찾을 동기가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해 정부 재정이 악화했다. 스페인도 임금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7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기고



정성희

• 동아일보 논설위원

‘理想郷모델’ 모래성처럼 무너져
고령화로 재정위기 초래 도미노

주요국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국립병원 치료가 전액 무상인 것을 비롯해 의료복지가 최상의 수준이다.

전 세계의 복지모델인 스웨덴의 실정은 어떨까.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06년 스웨덴의 공식 실업률은 6%였지만 실제론 17%였다. 장기 병가로 일자리를 떠난 사람들까지 고용한 것으로 처리했고 청년실업률은 유럽 최고수준이다. 1950년 이후 스웨덴에는 민간 부문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거의 없고 노동 가능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2명을 부양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집권한 프레데릭 라인펠트의 우파연합

한 영국도 시련의 계절을 겪고 있다. 의료제도를 예로 들면 영국은 국가재정에서 경비를 총당해 국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의료 국가다. 그러나 수술 한번 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봉급제로 의사를 고용하다 보니 의료진의 수준이 낮아 보수연정이 경쟁개념을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보여준 폭동에 가까운 대학생들의 시위는 그곳의 대학생들이 무상교육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전후에 유럽이 보편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냉전체제 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 핵우산으로 국방비 부담이 적었고 유럽식 계획경제가 나름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 각국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고율의 세금을 거둬 복지체계 건설에 쏟아 부었다. 1973년 오일쇼크로 유럽식 경제모델이 한계에 부딪혔음이 드러났는데도 유럽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성장 없는 복지’를 구가했다. 국민은 조기은퇴, 관대한 실업급여, 무상의료를 당연시하면서 ‘누가 돈을 내느냐’는 묻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지는 유럽이 재정위기를 맞은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령화를 들었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50년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1950년대 생산가능 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3명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된다.

인구가 고령화하고 출산율과 노동생산성이 동시에 떨어지다 보니 기업들은 공장을 아시아로 이전했고 이것이 다시 실업률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가 두고두고 경계로 삼을 일이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유럽위기의 해결책은 다시 ‘성장’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향으로 칭송됐던 유럽 사회복지 모델이 재정위기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모습에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다. [4]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사람이 아닌 한사람에게만 감정이 있다”

지난 1월13일 청와대의 한 비서관 입에서 튀어 나온 진단반, 농담반의 실토였다고 한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게만은 섬세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MB가 이런 표현을 했느냐 아니냐를 떠나 이런 말이 밖으로 퍼져나와 언론에서 인용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측근 비서관들이 과연 제 구실을 하거나 하고 있는 것인가.

당태종(唐太宗)과 재상이던 위징(魏徵)과의 고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당고조의 장자인 이견성(李建威)의 측근이었던 위징은 이세민(李世民)이 형과의 싸움에서 이긴 뒤 요직에 등용된다. 이세민은 위징이 자신을 세자 자리에 앉히면 안된다고 부왕인 고조에게 꾸준히 건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중용한다. 그야말로 정적을 기용한 것이다. 위징은 그후에도 꾸준히 대쪽같은 직언을 계속하며 당태

MB와 ‘열린 귀’

太平路에서



신대군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총주·대구MBC사장

종 이세민을 귀찮게 만들었다고 한다. 어느날 당태종은 위징의 직언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침실에 들어서면서, “이 늙은이가 한번만 더 나를 괴롭히면 목을 쳐버려야겠다”고 씩씩했다고 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문덕왕후는 자초지종을 파악한 뒤 “자고로 임금이 밝으면 신하들도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곧다고 했습니다. 위징이 곧은 말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폐하께서 얼

마나 밝으신 임금인지를 알수있습니다” 왕후의 이말에 깊이 깨달은 태종은 그 뒤로는 위징의 말이라면 거슬리게 듣지 않고 정사에 참고했다고 한다. 우리가 자주 듣는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뜨게 해 주지만 반대

로 전복시킬수도 있다”는 유명한 말은 바로 위징이 했다.(위징이 죽고 난 뒤 태종은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가 대패하고 만다. 태종은 위징이 살아 있었다면 고구려 정벌을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또 한가지 순자(荀子)의 ‘신하의 길’(臣道)도 오늘날 우리의 관리들에게는 좋은 경구(警句)다. 성악설(性惡說)로 유명한 순자는 신하의 도리를 다섯가

지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두가지를 소개한다. 순자는 충신과 아첨꾼을 다음과 같이 구분 했다. “충신은 명령을 거슬러 가면서 임금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아첨꾼은 명령을 따르지만 군주를 이롭게 못하게하는 사람”이다. 순자는 신하

의 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록을 남기고 있다. “푸른 색은 쪽빛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이루었지만 물보다도 더 차다. 면학을 계속하면 스승을 능가하는 학문의 깊이를 가진 제자도 나타날수 있다는 뜻의 청출어람(靑出於藍)도 바로 순자가 남긴 글이다.

당태종의 충직한 재상 위징의 고사나 순자의 신하의 길에 비추어 볼때 지난번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에서 청와대 비서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태는 무엇이었던가. 모두에 인용한 어느 측근의 말을 유추해 보면, 청와대 비서관들은 “우리는 안상수 대표처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직언은 앓았다”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에 와서 당나라 때의 재상 위징의 직언이나, 순자의 신하의 길을 요구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 주변에는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2년 동안 성공적인 대통령으로써 역할을 마치고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느냐의 여부는 MB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필수적인 것 중 하나는 충언을 서슴지 않는 측근들이 지리하는 것이다. [4]

선배들 모습 정리 후배들에 큰 귀감

‘언론인물사화’ 7권 발간 의미

정진석(본회 명예회우·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1985년 정초 조용만 최준 두 교수님을 찾아 세배 드린 필자. 수유리에서.

‘한국언론인물사화’ 일곱 번째 책이 지난 해 12월에 출간되었다. 1992년 12월에 첫 책이 나온 때로부터 18년이 흐르는 동안 대한언론인회는 선배 언론인들의 업적과 일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언론인 인물연구의 방대한 기본 자료를 축적하는 큰 업적을 쌓은 것이다.

인물사화의 편찬작업은 이해복 회장이 재임하던 1992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일곱 권째 책을 받아보면서 첫 권 편찬위원들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이해복(편찬위원장), 조용만, 김광섭, 최준, 홍돈섭, 김천수, 임석기 선생이다. 필자도 그 말석에 앉아 있었다. 조용만 선생 83세, 김광섭 선생 80세, 최준 교수님은 79세였다. 80 고령이셨지만 건강하셨다. 모두 존경하는 선배 언론인들이다. 여덟 명 편찬위원 가운데 이 회장님과, 제일 젊은 나이였던 필자만 남고 모두 저 세상으로 떠나셨다. 자신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사화의 수록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조용만, 최준 두 교수님은 내게 개인적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사랑을 주셨던 분들이다. 김천수 선생은 1987년에 필자가 ‘한국신문 100년 인물사전’을 편찬할 때에 프레스 센터 13층 편집인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최초의 언론인물사전 편찬이라는 까다로운 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고 지원해 주셨던 인연이 있었다.

첫 인물사화 편찬회의 뒤 식사를 마치고

조용만, 최준 두 교수님을 따로 모시고 무교동 어느 지하 다방에 들러 언론 현안과 과거의 언론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가시밭길을 헤쳐 온 선인들의 발자취’라는 부제를 붙인 474쪽 분량의 책머리에 이해복 회장은 이렇게 썼다. “한말의 언론 선각자들이나 일제 총검에 맞서 싸우던 항일구국의 언론투사들이나 8·15 이후 좌우 갈등 속에서 민족의 올바른 진로 제시에 용감했던 애국적 언론인들이나 건국 이후 민주사회 건설에 앞장섰던 자유언론의 기수들, 이 모든 언론인들이 헤쳐 온 길은 그 어느 나라 언론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선배 언론인들의 참모습을 기록하여 후배 언론인들의 연구와 언론활동에 보탬이 되게 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읽혀 언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이 회장은 설명

했다.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오는 동안 고달픈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항일 정신을 불태운 논객, 지사풍 언론인들도 많았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도 있을 수 없다. 시련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자랑스러운 발자취만 남길 수는 없었다. 사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여 변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물사화는 다양한 삶을 살았던 언론인들의 모습을 다시 살려내는 집단 창작물 성격의 작업이라야 했다.

첫 해에 출간된 ‘8·15 전편’ 상·하 두책의 집필에는 83명이 참여했다. 대규모 필진이 동원되어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133명의 인물론을 집필한 것이다. 수록대상 언론인의 선정에 완벽을 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누락된 인물도 있을 것이고, 수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인물이 포함되기도 했을 것이다. 최선의 필진이었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번

일곱 번째 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언론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들이자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많은 언론인들을 직접 접했던 분들이 인물 선정에 참여하셨으니 최선의 편찬작업이라 할 수 있었다.

1993년에 발간된 ‘8·15 후편’ 상·하 두책에는 141명이 수록되었다. 대상인물 250여명을 놓고 편찬위원회와 이사회가 선정한 인물들이었다. 119명의 필진이 글을 썼다. 2년에 걸쳐 출간된 책 네 권에는 작고 언론인 274명이 수록되었다. 2001년에는 후속작업으로 5권과 6권을 발간하였다.

‘독취 한국언론사’는 살아 있는 원로 언론인들의 경험을 담아내는 인물사화의 전단계 작업일 수 있다. 1994년 8월에 시작한 남북 언론인 생사확인 사업은 ‘돌아오지 못한 언론인들’이라는 책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이어졌다. 남북 언론인 찾기 사업에도 필자는 참여하였다.

퇴직한 언론인 모임인 대한언론인회는 친목과 동시에 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후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례가 이같은 책의 편찬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역사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현재 활동 중인 인물 가운데도 장차 언론사에 기록되어야 할 사람은 많다. 현역에서 떠났지만 노후를 보람 있게 보내는 모습을 대한언론인회는 인물사화의 발간으로 과시하고 있다. [필자]

종편TV

채널 순번-광고시장이 관건

시간이 흘러 미래의 어느 날 MB정부를 회고하면 4대강과 아울러 미디어법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떠오를 것 같다. 거의 2년에 가까운 격렬한 논란 끝에 입법화되었고, 미래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올 가을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종편이 자기 모습을 국민에게 드러내면서 미래가 현실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관심사는 ‘4개의 종편이 과연 모두 생존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광고시장은 제한되어 있고, 현재 방송 3사가 이 파이를 분할하고 있는데다가 KBS 2 수신료를 소액 인상하여 여전히 KBS의 광고시장에 대한 의존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과연 종편이 모두 안착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거의 30년 동안 동결되어 온 KBS의 수신료를 현실화하여 KBS가 광고시장에서 빠져나가면 그 공백만큼 지상파와 종편의 생존경쟁은 훨씬 부드러웠을 것이다.

현재 방송 3사의 평균 시청률은 약 8%이다. KBS의 경우 1과 2를 합하면 16%이지만 절반은 수신료로 상쇄될 것이니 KBS 채널 하나를 제외하면 3사 중

합 시청률은 약 24%정도로 봐도 무방하겠다. 2009년 방송3사의 광고 총 매출액은 약 1조 9천억 원이다. 이를 24%로 나누면 1%당 약 800억 원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즉 1년 동안 평균 1%의 시청률을 올리면 800억 원이라는 광고수입을 올리게 된다는 결론이다.

(물론 이 계산은 다른 변수를 모두 제외하고 단순화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청률이라도 광고단가는 달라진다.)

결국 종편이 언제 어느 시기에 평균 1% 이상의 시청률을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 방송지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기고



최 홍 재

- 공정언론시민연대 정책연구원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종편들은 가능하면 이른 시기 내에 이 벽을 깨려 할 것이고 지상파들은 기존 종편들을 현재 존재하는 케이블 방송 지대에 밀어 넣고 싶은 것이다. 바야흐로 지상파와 종편의 제2차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2차전의 출발점은 채널의 순번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종편채널들이 다른 일반 케이블 방송처럼 30번 대에서 번호를 배정받는가 아

를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방송사가 어디인가에 굳이 구속되지 않고 재미있는 내용이면 찾아가기 시작했다. 얼마 전 웹툰 케이 블방송에서 진행한 슈퍼스타K의 시청률이 14.66%가 나왔다. 방송 3사의 2010년 평균 시청률이 약 8%임을 감안하면 경이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청률을 좌우하는 대부분의 연령층들은 방송3사에 채널이 고정되어 있다. 종편이 이 사이사이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일반 케이블 채널 속에서 방송을 하느냐의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편사업자들은 기존 방송3사와 동격의 채널을 배정받으려 하고, 방송 3사는, 특히 MBC와 SBS는 그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다. 다만 방송3사와 동일한 경쟁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매체다양화라는 미디어법 입법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상파와 종편사업자는 생존을 위한 운명의 대결을 벌이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지상파 사이 채널 배정받아야 유리 경제성장기여-해외시장 개척필요

니면 지상파와 동격의 채널을 확보하는가에 따라 크게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방송 3사의 사이 사이 채널들은 TV 흡소량이 차지하고 있다. 종편사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 영리사업의 흡소량 자리에 자신들의 채널

종편 TV시대 質높은 콘텐츠 기대

TV에 4개의 새로운 종합편성채널이 탄생하게 됐다.

그동안 3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조에서 새로운 콘텐츠의 방송에 목말랐던 시청자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신문부가 언론을 통폐합한 뒤 일부 지상파방송의 편파 보도, 시청률 위주의 일부 비교육적 프로, 방만한 경영 등에 실망해온 시청자로서 새로운 기대를 하게 한다. TV방송계의 커다란 빅뱅이 예고되기도 한다.

특히 보도 면에서는 지난 광우병 파동 때 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일부 방송들은 어린 학생들과 주부들까지 거리에 나서게 했다. TV방송의 국민에 대한 임팩트는 활자미디어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자극적이며 선동적이다. 마치 팩트(Fact·사실)처럼 위장된 허위보도는 국가를 견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영국의 BBC처럼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한 이유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의 방송채널들이 생겨남으로써 시각을 한쪽으로만 왜곡시키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보도뿐 아니라 드라마나 쇼, 오락프로의 저질화는 이제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 그동안 공영방송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저질 프로로 시청률 경쟁에 뛰어들어 방송 저질화를 부채질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좌파정권의 10년간 토론프로는 또 어땠나. 대한민국이 세계 초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것보다는 허구한 날 이념논쟁을 주제로 출연자들끼리 입씨름만 하고 어떤 방송에서는 심지어 출연자 구성이나 방송진행에서 편파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종편채널의 출현으로 기존 지상파방송들은 치열한 경쟁의 들판에 서게 됐다. 이러한 기존 방송관행을 구태의연하게 재연하다가 시청자의 냉엄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 콘텐츠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송환경에는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대중매체의 광고시장은 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취 이들 방송 간에 치열한 광고 쟁탈전에 예상된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늘어난 방송채널 간 이전

투구(泥田鬪狗)의 싸움을 하다가는 또 다른 저질방송이 출현하는 셈이 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종편채널들은 여론왜곡이 없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내용의 방송으로 정말 시청자들이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 방송의 습성을 되풀이 하다가는 시청자의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존 지상파 방송들도 새로운 방송콘텐츠 개발과 공정한 보도 등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새 종편채널이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긴급時論



김 광 섭

- 본회 회우
- 전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 소설가

는 좀 더 매크로(Macro)한 시각으로 뉴스밸류를 정하기 바란다.

둘째, 드라마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 드라마의 주류는 우리가 일반적

이다. 아름다운 일한 이름 없는 사람들,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 그늘이나 연구실에서 묵묵히 일하는 전문가들, 우리경제를 일으키는 산업전사, 연극, 영화, 고전음악, 대중음악, 국악, 과학계, 체육계에 있는 인재들에서 뉴스를 찾아야 한다. 눈을 좀 더 세계로 돌려 다른 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 뉴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

는 좀 더 매크로(Macro)한 시각으로 뉴스밸류를 정하기 바란다.

둘째, 드라마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 드라마의 주류는 우리가 일반적

정확 -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 신뢰 확보 政治-官邊 뉴스 탈피... 드라마등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뉴스보도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할 것이다.

나는 아침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뒷산 등산을 한다. 그런데 지상파채널의 아침 뉴스 골든타임에는 거의 빠짐없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인터뷰가 등장한다. 또 정치뉴스라는 것도 꼭 전한다. 뉴스 시간 마다 관련뉴스로 가득하다.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 중의 하나가 정치인이고 정치다. 과연 시청자들이 가장 원하는 뉴스가 정치뉴스이고 관련뉴스일까. 뉴스의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해서 시청자들이 친근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인물과 사연을 보도할 수는 없을까.

이와 같은 틀에 박힌 뉴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취재기자들의 뉴스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다. 기자들이 출입처의 좁은 시야에 매몰되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세상에는 뉴스가 널려있다. 관청이나 정치권에서 나온 것만이 뉴스가 아

으로 접할 수 있는 캐릭터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등장해 이상한 언어를 구사하고 행동한다. 내용도 음모와 모략, 질시, 분노, 복수 등 극단적인 상황이 대부분이다. 재벌과 그 2세의 등장은 필수고 반드시 출생의 비밀이 뒤따르며 이혼경력이 있거나 이혼위기에 있는 부부, 불륜관계, 우연의 일치, 등장인물 서로 간에 모르는 비밀 등등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 같은 비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도 건전한 내용을 갖고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드라마 작가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드라마는 반드시 젊은 층만을 시청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깰 필요가 있다. 좋은 드라마에 목마른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셋째, 이념논쟁에 치우친 토론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거의 모든 토론 프로는 이념논쟁으로 점철돼 왔다. 많은

국민은 힘든 생활 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세계 초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들은 아까운 전파를 낭비하며 우리생활의 형편과는 큰 상관도 없는 이념논쟁을 토론의 주제로 삼으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분열을 조장해온 감이 있었다. 그런 자기파괴적인 토론보다 국민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비전과 상식을 알려주는 게 더 낫다.

넷째, 연예인들이 등장해 소란을 피우는 쇼프로그램을 줄여야 한다. 요즘 TV채널을 돌리다 보면 비슷한 MC와 등장인물들이 나와 별 내용도 없는 잡담과 몸개그로 소란을 피우고 웃고 떠드는 그만 그만한 쇼프로그램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젊은 층에서 시청률이 좀 높게 나오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이런 프로로 채널을 도배해서야 되겠는가. 다른 프로를 보고 싶은 계층에도 시청권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다섯째,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무게 있는 연중기획 한 두 개쯤은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는 바야흐로 대변혁기와 선택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막바지에 다다른 북한의 도발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언제 한반도의 통일이 올지 모른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한반도의 좌표는 과연 어떻게 잡아야 할지 위대한 선택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임팩트가 강한 방송에서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편가르기를 하기보다 이런 대 기획을 통해 나라의 좌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방송의 역할일 것이다.

여섯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소프트파워의 시대다. 우리 언론의 정치 과잉을 타파하고 국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며 문화콘텐츠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공연인의 등장, 공연프로그램이나 책, 전시회 소개 등은 지금처럼 시청자가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스쳐 지나가듯 형식적으로 방영할 것이 아니라 좋은 시간대에 제대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겠다. [\[7\]](#)

4면에서 이어집니다.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그것이다. 내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 외적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다. KBS가 완전한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수신료에 기초하도록 한다면 시장의 파이는 그만큼 확장된다. 이를 국민에게 동의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극도의 악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 경제의 성장 그 자체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광고시장의 파이드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에 방송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북돋우는 것은 상생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의 방법은 해외시장에 있다. 한국 경제는 세계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 숙명이다. 미디어의 생존여부를 국내시장에 한정해서 예측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 동아시아에서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은 이미 여러 가지로 증명되었다.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을 개척해 가는 적극적인 의지와 분투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를 일구어 갈 수 있다고 본다. 시장이 좁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 오늘의 한국경제를 일군 역사를 살펴 볼 때 현재의 제한된 광고시장에 4개의 종편사 진출은 새로운 글로벌 미디어사가 탄생해 가는 시작점으로 예측할 수도 있겠다.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어렵

고 힘든 경쟁이 시작된다. 매체가 융합되는 시기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념적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이 격렬하게 부딪치며 여기까지 왔다. 이제 생존의 길은 하나다. 국민(소비자)을 만족시켜 시청률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다.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품격과 감동 가득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편파성과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의 조작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국민으로서 는 매우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8\]](#)

美-中 정상회담과 韓半島의 核

세계 최대의 개도국인 중국과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나라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표현하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회담 결과는 북한의 우라늄농축계획(UEP)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을 일부 언론이 평가했을 뿐 기대에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미·중 정상은 천안함 폭침과 우리 국토가 선제 공격당한 연평도 포격을 단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뭉뚱그리고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거의 만행은 눈감고 넘어감으로써 패권국들이 주무르는 국제정의란 무엇인지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었다.

그간 북한을 비교해온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바마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감사를 표시했다. 양국 정상은 최고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데 동의했으며 오바마는 북한의 UEP는 스스로의 약속과 국제규약을 범하는 것임을 국제사회가 명백히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월21일 사설에서 “중국이 그간 북한의 UEP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태도를 바꿔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 것도 성과의 하나라 할 만하다”면서 문제는 미·중이 북한의 비핵화에 공동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로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입을 다물었던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UEP에 우려를 표시한 것은 일

단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1월20일 “북한의 도발과 핵 협박에 대한 단호한 응징·제재 없이는 재도발을 막을 수도, 핵 폐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지난 20년 동안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 남북 대화나 6자회담 재



김영한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기대 못미쳐 불투명한 中國태도 냉정한 분석 필요

개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썼다. 북핵에 대해 국제사회는 너무 긴 세월을 허송했고 북한은 시간을 벌었다. 6자회담에선 중국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했지만 오산이었다.

동아일보는 21일자 사설에서 “‘핵 참화’ 협박을 서슴없이 하는 북한이 미·중 정상과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압박을 느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북핵의 실체가 분명해지면 한국과 일본도 자위 차원에서 핵무장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평화지향성과 거리가 멀다. 북핵 말고도 의도가 불투명한

하고 안전과 평화를 증대하는 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수억 명을 빈곤에서 탈피시켰으며 이는 중국인이 찬양받을 일이지만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전진배치(forward presence)로 가능했던 수십 년 간의 아시아의 안정 덕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동북아 균형자’였다는 자랑이고 중국은 진정한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라는 주문이다.

인권문제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거대한 인구의 중국은 경제 사회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중국민들의

생활향상과 민주주의, 법치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인권에 관해 다른 국가들과 대화하며 훌륭한 관행을 서로 배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중국을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다.

신년공동사설로 대화를 주장하던 북한은 미·중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다. 이것이 미·중 정상대화의 덕인지, 아니면 아예 편승한 위장대화전술인지는 곧 알게 된다. 한겨레신문은 관련 사설에서 “(남북)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현안에 대한 북쪽의 전향적인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 북쪽 소행이 분명한 연평도 포격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 하며,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북쪽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추구한다는 점을 북쪽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3대 세습독재체제에는 핵무기와 25만~30만 명의 특수군이 있다. 선군정치의 핵심인 핵무장은 비대칭 전술에서 우위를 점해 끝까지 버텨보려는 북한의 생존전략이 아니 쉽게 포기 안할 것이다. 대화와 협상으로 핵 폐기가 안 될 때 동아일보 주장처럼 우리도 핵 억지력을 갖자는 주장이 급속히 확산할 것이다. 그것은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둘 수도 있고, 김태형 전 국방장관의 작년 11월 발언대로 미군 전술핵이 남한에 재배치되도록 외교안보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반도 비핵화도, 전작권 인수 후의 자주국방도 수월하리라는 사실이다. [4]

역사는 미래로 흘러가지만 교훈은 현실로 살아있다. 더 이상 한반도 운명을 강대국의 협상테이블에 맡길 수는 없다. 통일 등 한반도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최빈국에서 짧은 시일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핵만 보유하지 않았지 세계 8위로 성장했다. 문화는 한류가 동남아를 휩쓴 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스포츠도 세계무대에서 코리아의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런 국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위축된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협상 테이블에 더 이상 맡길 순 없다. 이제 한국이 G20 국가답게 한반도 통일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에 미국은 안보상 절대적으로 중요한 국가요, 중국은 수출 제1국으로 경제적 동반자다. 미국과 중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한국에 중요한 국가인 만큼 한국도 이들 두 국가에 중요한 국가다. 그 동안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 얽매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외교 심리적으로 위축된 자세를 견지해 왔다. 올해부터는 한국은 한반도 통

美-中 샌드위치외교 벗어날 때

일의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 미국과 중국에 당당한 태도로 할 말은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샌드위치 외교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반도 운명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후회가 없다. 한국은 경제력 세계11위, 군사력 8위의 국가로 성장했다. 거기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면서 북한이 제기한 6자회담 테이블 명석을 깔면서 한국의 참가를 채근하고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남북대화를 하라고 이명박 정부를 쥐어짜고 있다. 중국은 철저하게 경제와 외교를 분리해서 한국을 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서서히 경제적 종속국을 만들면서 북한 항구



김화

· 본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현 데일리 리뷰 정책고문

와 경제특구를 조차해 실질적으로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영토욕심은 없지만 동북아의 중국 제패를 막기 위해 남한에 미군을 주둔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눈치를 의식해서 북한을 다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동북공정 등을 통해 은근히 영토 확장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방장관이 한미국방장관회담을 한국에서 열면서 한국 정부에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국방장관답지 않게 외교문제까지 언급하는 배경을 한국정부는 헤아려야 한다.

한반도가 열강에 의해 해방된 역사적 부담 때문인지 남북한 모두 열강에 외교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북한이 기를 쓰고 미국과 대화를 트기위해 전력투구하

는 것이나 한국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피격 때의 중국의 일방적 북한 두둔이나 중국 외교 고위 간부의 외교 결례에도 침묵하는 것은 다 역사적 콤플렉스인지 모른다. G20을 개최할 만큼 강대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역사의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이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 지형은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은 중국과 군사동맹으로 맺어있다. 국가이익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게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1949년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한반도를 미 방위선에서 제외한 에치슨라인(미국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로 제한)을 선포한 것이나 중국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역사적 실증이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남북한 모르게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수동적인 외교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 제반문제에 한국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발언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한국만이 할 수 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라지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은사인 대학교수가 한 주례사가 감명 깊었다.

“여러분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정신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도층의 도리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는 주례가 존경스러웠다. 방송계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됐다고 한다. 새 시대, 새해를 맞아 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생각해 본다. 메이저 방송들은 시청률, 영향력, 신뢰도 등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려왔고 또 자랑해왔다.

방송 종사자들도 최고급의 대우와 주변의 부러움을 사면서 누려왔다. 이제는 방송, 특히 메이저 방송과 방송 종사자들에게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터이다. 종편 4곳과 보도 채널 1곳이 선정되면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시대가 지나고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바뀌게 됐다고 한다. 앞으로 눈치 보기와 인기에 매달리는 방송이 범람할 것을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방송사들도 경영과 제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 특히 메이저 방송의 노블리제 오블리주 책무가 덜해 지지는 않는다. 어려울 때에 노블리제 오블리주가 더 절실하고 그 결과는 더 빛나게 된다.

손병두 KBS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KBS에 부과된 하나의 중요한 책무는 사회통합이라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점인 2011년 한반도의 사회통합 기상도는 돌풍 경보가 발효 중이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교두보 기능을 담당해야 할 방송의 행태는 방관자의 자리에서 지켜보거나 갈등의 계임을 즐기는가 하면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 12월 23일 MBC의 시사토론 프로인 ‘2010 한반도 전쟁과 평화’가 한 단면이었다. 정욱임, 최재성, 박선영, 조승수 등 4명의 국회의원과 류호열 고대교수, 장성민 전 민주당위원이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시작과 동시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고 그 기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 어쩌면 출연 섭외를 하면서 누가 어떤 말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논쟁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도 했을 법하다. 그들의 말을 들어 보지 않아도 할 말이 뻔한



종편 TV등장 무한경쟁시대로 진입 시청률 보다 갈등·불만 줄이는 노력을

인사들이었기에 말이다. 결과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루면서 남남 갈등과 대립의 골을 키웠으며 방송사는 시청자들에게 싸움 구경을 시켜 시청률을 올리는 데 몰인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지난 연말 KBS 뉴스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와 4대강 관련 보도를 하면서 팩트와 관계없는 “4대강 갈등 증폭될 것” 이라거나 “야당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멘트를 덧붙여 갈등과 불만, 반대를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주게 했다.

방송들은 또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두 팔 들어 찬성하는 여당과 악을 쓰며 반대하는 야당의 논평을 나란히 보도하므로 시청자에게 혼란과 갈등을 심어 주었다. 차라리 신년사만 보도하고 정당의 논평은 생략하는 게 시청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방송 뉴스에서 어떤 사실에 대한 정당의 논평은 원천적으로 다루지 않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요즘 우리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당파이기주의와 득표(得票)지상주의, 개인영달주의에 함몰된 것으로 보이기 때

표현으로는 모자란다.

요즘 정치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산불처럼 타오르는 포퓰리즘은 표(票)거두기 작전이며 자칫 나라를 불태울 위험한 정치게임이다. 요즘 정치권의 무상복지 프로그램앤더를 보면서 만약에 무상복지가 실현되고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사회가 된다면 지상천국이 실현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1월4일 SBS시사토론은 “무상복지 논쟁, 누가 옳은가?”였다. 논쟁을 위한 논쟁의 장이었고 난해한 숫자와 복지 포퓰리즘의 끝없는 총돌의 장이었다. 합의 도출을 위한 방송이 아니었지만 정치권의 총돌을 국민 대중으로 확산시키고 갈등을 키우는 결과만 빛나는 것으로 보였다.

KBS는 1월19일 9시 뉴스의 ‘이슈&뉴스에서 “복지 총돌, 무상복지인가? 세금 폭탄인가?”라는 타이틀로 이 문제를 다뤘다. 뉴스를 시작하면서 ‘공짜’ 유권자 표심 흔들기에 이보다 좋은 말이 있을까요? 라는 화두를 던지며 비판적인 분위기로 시작했다. 그러나 장황한 설명과 숫자 놀음 끝에 내린 결론은 “세수 이상 복지지출이 많다는지 선심

성 예산 지출이 많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훼손될 것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정책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결국은 “무상 논란 확대에 앞서 정치권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과 구체적 운용 방안을 내놓고 진정한 복지인지 공짜 포퓰리즘인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끝을 냈다. 국민의 등 뒤로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국민이 판단할 자료를 방송이 제공하고 깨우쳐 주기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방송이 제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눈치를 바서는 안 된다.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해야 한다. 때로는 권력자의 노여움도 감수해야 하고 정치권의 원망도 감내해야 한다. 표에 매달리는 정치권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시청률에 매달리는 방송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아래 글은 망할 때의 로마시 얘기다.

〈로마의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는 시민을 거대한 무위도식의 집단으로 만들었다. 로마시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 김기홍 저 이야기 교회사 중에서- 그리고 로마는 망했다. 지옥의 나라 짐비브웨에서 농업 NGO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농촌발전협력기구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무상원조는 농민을 타락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의욕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상원조는 절대 안 됩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얻은 것이어야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깁니다.” -미스모토 진이치 지음, 아프리카의 눈물 중에서-

우리사회에는 원로가 없다. 사제들이 추기경을 비꼬고 폄하하는 판이다. 스승이 회초리도 들지 못한다. 신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치명적인 문제는 갈등과 포퓰리즘이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판사판으로 파고든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 방송이라도 바른 기능을 다 해야 한다.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뒤편을 다해야 한다. [필자주]

6면에서 이어집니다.

북한은 여력이 없다. 북한은 군사력은 막강하지만 주민들이 굶주릴 만큼 경제가 쪼들리고 무엇보다도 권력세습으로 집권층이 주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다. 한국은 폐허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고 경제대국으로 우뚝 솟았다. 경제규모는 북한의 37배요 수출은 200배가 넘는다. 한국은 북한을 이끌어 가면서 한반도 분단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한국은 경제규모나 G20 국가 영향력에 비해 미국과 중국에 너무 할 말을 참고 있다. 너무 소심해도 국제외교에서 무시당한다. 능동적으로 외교하면 한국도 미국과 중국에 쓸 외교적 카드가 많

다. 한국이 하루빨리 미국과 중국의 샌드위치 외교에서 벗어나야 영향력도 커지고 발언권도 강화된다. 한국은 미국 동북아의 교두보이며, 한반도가 불안하면 중국경제의 성장에 치명상을 입는다. 대국인 미국과 중국에게도 한국은 중요한 국가다.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 역발상을 최대한 활용하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움직일 카드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외교의 대혁신이 요청된다. 지금은 한국정부가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서 대북 강경책을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남북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북한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지금 북한은 남한으로 부터의 돈줄이 끊어지자 협박과 생떼를 쓰고 있지만 오래

못 간다.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좋은땅 시절’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생존의 길을 찾는다. 북한은 한국과 적대정책으로 업을 짓은 없다. 한국정부는 이런 사실을 북한당국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한다. 진보정권 10년 간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 현물의 총규모는 69억 5950만 달러(연평균 7억 달러)로 10년간 북한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해당한다. 과거 10년간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식량 270만 톤, 비료 256만 톤을 받았다. 현재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받은 건 개성공단 임금 5000만 달러뿐이다. 남북관계의 이니셔티브는 남한이 쥐고 있다. 한국은 이 때 남북대화나 협상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국

가체제나 경제규모로 봐서라도 한반도 문제는 한국정부가 이끌어야 한다. 한국은 그 동안 북한에 질질 끌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교묘하게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 핵을 개발하고 권력세습을 준비했다. 그러나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남한에서도 종북주의자들만 제외하고 북한의 이런 속셈을 다 알고 있다.

올해는 ‘세계의 눈’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이럴 때 한국이 적국외교로 미국과 중국의 샌드위치 외교에서 벗어나고 지혜롭게 북한을 다루면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필자주]

교육개혁 ‘환골탈태’ 해야 한다

새로운 꿈을 안고 출범한 뉴밀레니엄 서막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냉전은 갔으나 안보가 흔들려 평화는 불안하고 경제 통계는 좋아졌으나 분배는 악화되어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사법부, 언론사, 행정부, 시민단체, 국회, 군, 경찰, 교육계 등 국가 중심 조직들의 부조리가 노출되고 ‘국가전복전쟁’의 타깃이 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21세기 초 우리 사회의 정체성 위기와 혼란은 심각하다. 새밀레니엄의 두번째 10년이 시작되는 2011년 1월 G2회의에서 북한핵무장 해결은 남북 당사국 문제로 넘겨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교육 현안을 둘러싼 보·혁논쟁이 치열했다.

평준화, 체벌, 교원평가제, 학교급식, 전교조, 자사고, 대학자율화, 이데올로기교육 등 교육계의 해묵은 쟁점이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을 장식했다.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과 보수단체가 맞붙을 놓아 표출된 ‘국가반역’을 선동하는 이념교육, ‘교권 추락’, ‘공교육 마비’, ‘사교육비 부담 증가’, ‘도덕교육 실종’, ‘교육관료의 부패고리와 복지부동’ 등 교육 현안은 연평도 피격에 버금가는 국가 위기를 경고하는 적신호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사교육비 1위, 한국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성적이 OECD 1위, 2위, 7위였다.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도 한국은 7위였다. 레이건 오바마 등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 교육의 질과 높은 성취도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수월성은 공교육보다 학부모의 교육열에 의한 사교육의 결과였다. 세계 정상의 음악 체육 무용 예능 분야의 신세대 스타 대부분이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한 사교육의 결실이었다.

공교육의 부실로 학부모들은 30조가 넘는 천문학적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가정경제는 파탄 나고 교육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교 교육 평준화 이후 공교육은 교육의 수월성 추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초등교육에서 취업시험 준비 교육까지 사교육과 학원교육에 의존하고 공교육은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교육 파행이 좌편향정부에서 벌어졌다.

대부분의 상급학교 진학 시험과 각종 자격고사 임용 시험 준비 교육을 모두 사설 학원이 주도하고 있다.

사대졸업 일부 수험생은 교사임용시험까지 사설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한국 공교육은 비리와 숙정 대상으로 신문 사회면을 자주 장식한다. 이런 현상은 좌편향정부가 학생을 위한 교육 수월성 추구보다 정치 세력화한 교사집단과 야합한 이후 가속화된 것이다.

오바마대통령이 부러워한 한국 교육은 공교육이 아니고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사교육에 의한 수월성 추구 결과였다.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에서 신세대가 세계를 놀라게하는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는 기간에 국내에서는 공교육 비리 보도가 속출, 대통령이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직접 교육 현장에 나가 장

학사들이 할 일까지 대신 하고 다니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요즈음 KBS TV 주말드라마는 ‘학교는 잠자는 곳으로,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학교교육을 무시하는 학생 때문에 교사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온다. 50세 이상 초 중등 교원 80% 이상이 명예퇴직을 고민한다는 사

時 論



박 석 흥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保革시비 ‘국가전복전쟁’ 수준 이르러 이념정립...현대사왜곡 교과서 수정을

회조사 결과도 나왔다. 학교는 좌편향 전교조 교사들의 의식화교육 장소로 전락했다고 혹평하는 전직교장도 있다.

중병상태의 교육을 하루아침에 완치시킬 수는 없지만 MB정부가 교육개혁을 서둘러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의 쇄신, 교육이념 정립, 교사 양성 임용제도 개선, 전교조의 불법 규제, 교육평준화 재검토 등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헌법 교육법 국가보안법 교육시행령 등을 근거로 교육현장의 무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MB정부는 일선교사들에게 한국교육 이념부터 제시해야 한다.

교육개혁 첫 작업으로 전교조 지침서인 현대사 교과서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MB정부가 출범 첫해에 손뚱던 좌편향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시 결과를 감사원이 감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가 검인정한 현대사 교과서의 55개항 왜곡을 수정하라고 지적했으나 1년후 나온 책에도 건국 전후의 좌파 폭동과 반란 반역 등은 수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수록됐다.

소련 위성국가가 북한에 수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되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정음발언을 비롯해 46년10월1일 대구폭동, 48년 제주 4·3폭동,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을 진실과 다르게 기술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보급됐다.

스탈린이 점령군에게 1945년 9월20일 북한에 정권을 수립하라고 지시한후 북한에서 국가수립이 진행되고 있었고 남한까지 공산화될 위기에서 정음발언이 나왔음에도 그런 사실은 밝히지 않고 분단이 남한 때문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러시아가 공개한 슈티코프 대장일기에는 9월 28일 로마넨코 평양주재 소련 군사령관이 사브린 서울주재 소련 영사,

김일성, 여운형과 연석회의에서 체포자 석방, 좌익신문 복간, 조공지도자 체포령 철회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남한에서 파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하고 파업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다.

대구폭동 등이 소련군 지령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밝혀졌음에도 문제의 교과서는 민중봉기를 고집했다.

제주 4·3사건은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투쟁”, 여수순천 반란사건은 “제주도 유격대 진압 동원에 대한 반발” 것이라고 기술하여 건국을 방해한 반국가행위를 투쟁과 정당한 반발 등으로 표현했다. 6·25전쟁도 부르스 커밍스 수정주의 사관과 비슷하게 기술했다. 현대사 왜곡 뿐만 아니라 노무현정부 시절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 학생 1백여명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가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가 합법화시킨 전교조 일부 교사의 국가반역교육 결과는 이후 교육법 조 언론 국회 각 분야에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적은 미국” “북한 핵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사관학교 입학생이나 사법고시 합격생 국회의원에게서 나왔다.

연평도 피격 사태가 ‘우리나라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답한 초등생이 43%였다고 한국교육이 발표했다.

빨치산 추모교육이 무죄라는 판결 등 일반 상식을 초월한 법원의 판결과 일부 386세대 선출직 파워엘리트의 포퓰리즘 정책결정이 신문에 보도돼 국민을 당혹

케 했다. 노재봉 전국무총리는 1월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토론회에서 건국후 시작된 친북 반국가 세력의 지속적인 ‘국가전복전쟁’을 MB정부와 국민이 망각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테러 폭동 등 비정규적인 무력 사용과 문화를 가장한 선전 선동에 의한 연합전선전략으로 사회를 교란시키는 국가 전복 전쟁은 국제법상으로는 전쟁이 아니지만 내란을 촉발 수 있는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고 경고했다.

노재봉 전총리는 국가 전복전쟁은 국가의 모든 가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왜곡 기반적인 선전을 동원해 사회 의식변화를 획책한다며 좌파들의 현대사 왜곡도 그런 일환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전

총리는 70년대 형성된 의식화 세력이 정치 언론 법조 교육 분야에서 연합전선전략을 펴 국가전복전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우려했다.

전교조 일부교사는 이 국가전복전쟁의 전위대로

기성체제의 모든 가치를 무효화하는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노전총리는 지적했다. 이주호장관과 이른바 진보교육감들과의 싸움이 이념논쟁을 뛰어넘어 국가 전복 전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전교조가 장악한 일부 학교는 법이 무시되는 해방구와 같다고 고발한 이계성 전인천고교장은 학원에 밀려 무력화된 학교가 좌파의식화 교육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은 교육법 시행령 교육과정 등 기본 지침을 근거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국가반역을 선동하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어린이들에게 주입해서는 안된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교육은 사법부의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검인정한 교과부 책임자도 의법 처리하지 않았다. 수업방법 대학입시제도 개선보다 교육행정부터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공교육을 살릴 이명박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4]

KBS 열린음악회 방청 신청

대한언론인회는 금년도 대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KBS 뉴스서비스에 이어 KBS TV 스튜디오 및 뉴스 스튜디오 등을 견학하고 열린음악회를 방청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방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방청일자 : 2월 22일(화요일)
- 16 : 20 KBS신관로비 집합(시간엄수), 국제회의실이동(현안설명)
- 16 : 30- 17 : 30 제작현장 견학
- 17 : 30- 18 : 30 저녁식사(신관 식당)
- 19 : 00- 21 : 00 열린음악회 참관(KBS 홀)
- * 참석을 원하시는 화우는 2월 16일까지 본회 사무실(732-4798)로 연락 바랍니다.(선착순 100명)
-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9호선(안행)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NIE특강

눈높이 맞춰 고기잡는 법 제시

이규섭(본회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지난 1월 6일 '중등교원직무연수'에서 '신문을 활용한 논술지도' 특강을 하고 있는 필자.

“선생님 나이가 몇 살로 보이나요?”
“선 살이요” 변성기에 접어든 남학생의 걸걸한 목소리다.

“내가 무슨 송해 오빠야, 그렇게 젊게”

“예순 살이요” 여학생이 공깃돌 받듯 응답한다.

“젊게 봐줘서 고마워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지공파’ 세대야”

겨울방학을 앞 둔 중학교 3학년 교실. 일단 시선은 끝났다.

“기말고사도 쳤잖아, 며칠 후면 방학이고, 방학 끝나면 나흘 뒤 졸업식 아니 중학생시절도 ‘쫄’인데 글쓰기 강의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오늘은 신문이나 보면서 한시간 보냅시다”

“와우(WOW)” 함성과 함께 ‘쫄’이란 말에 눈빛을 반짝이는 여학생의 시선도 포착된다.

중학교 1교시는 45분. 집중력이 떨어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주입식 강의는 무리다.

신문을 넘기며 지면구성과 함께 해설, 퍼쳐, 기획, 탐구, 인터뷰 기사 등으로 뉴스를 분류해 주며 배경설명을 곁들인다. “그건 미처 몰랐네”하는 반응이 감지된다.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스포츠, 문화, 연예기사는 질문을 던지기도하고 연말 방송대상 후보에 오른 스타들의 출연작품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서 정보를 공유한다. 신문을 통해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공부할 수 있음을 은연 중에 설명한다. 의견기사인 사실과 칼럼을 많이 읽으면 전문가들의 해박한 지식을 통해 세상을 공부하게 되고 이해력과 창의력, 사고력과 비판의식이 싹트게 된다고 알려준다. 지난해 수능 시험에 신문지문이 출제 된 만큼 방학 중에 관심 있는 기사 한 건이라도 스크랩하여 주제와 문단을 요약하고 나의 중심생각을 써보라고 주문했다.

강의를 마칠 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다. “선생님이 ‘꿈’은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이루어진다’를 크게 외치면서 강의를 마무리한다. 세대의 간극을 넘어 동화되는 느낌이다.

뉴스 요리사 비유 어휘선택

기자반 학생들은 6하 원칙 등 기본은 알고 있다. 기사작성에 유의할 점을 설명한 뒤 편집기자는 뉴스요리사에 비유하여 눈높이를 맞춘다. 쇠고기로 불고기와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듯이 뉴스제목에 따라 기사의 맛이 달라진다. 뉴스 밸류(가치판단)는 메뉴 선정, 레이아웃(기사배치)은 ‘상차림’으로 쉽게 풀이한다. 제삿상에 ‘홍동백서’ 등 법도가 있듯이 기사배치에도 일정한 틀이 있으나 요즘은 보기 쉽게 배열하는 추세라며 편집에 포커스를 맞추면 귀를 쫑긋 세운다. 한국편집기자 협회서 발행한 편집수상작품들은 시각적 효과를 더해준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많이 읽고, 많이 쓰면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간에 글쓰기를 강조하기 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효과적이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새해 들어 서울시교육연수원이 주관

한 ‘중등교원직무연수’와 수도권의 시립도서관 평생학습센터의 ‘논술 쓰기’ 초청특강은 스스로도 많은 공부가 됐다. 두 특강의 공통점은 강의할 원고를 사전에 제출해 달라는 것. 원고분량은 1시간 당 A4 3.5장(12포인트)으로 만만했다. 강의료는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적다.

방학을 맞아 5일간 진행 된 교원직무연수의 강의 내용은 대부분 ‘진학지도를 위한 마인드 제고’로 현직 교사들이 강사였고, 내게 주어진 주제는 ‘신문을 활용한 논술지도’ 3시간이다. 수강 대상이 고교선생님들인 만큼 글쓰기 교안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내용 평가와 논술문 평가 등 논술첨삭에 눈높이를 맞췄다. 사전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각 1부씩을 준비해 오라며 보수와 진보언론의 균형에도 신경 썼다. 논술지도는 단 시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교사가 신문을 활용한 논술지도까지 한다는 게 현실적으

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개그프로의 멘트처럼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글쓰기가 직업인 퇴직언론인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엔 “종편이 보수언론에 집중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강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만큼 주장은 있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논쟁에 말려들지 않았다.

평생학습센터 ‘논술 쓰기’ 특강에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메모를 하는 등 집중력이 가장 돋보였다. 강의는 논술의 유형과 출제경향, 논술작성요령에 눈높이를 맞췄다. 대부분 대학의 논술출제 유형은 요약하기,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비판하기, 사회적 문제와 연결하여 해결점 찾기, 그리고 도표와 그림 해석 등이다. 사고의 유연성과 균형감각, 논거의 타당성과 논지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효과는 설문조사의 추상적 개념보다 ‘초딩 아들과 신문읽기’(동아일보 2010년 11월 17일자)를 예로 들었고, ‘NIE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입증’ 논문(2010년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학과 교수)을 사례로 학업성취도와 정보파악능력 점수가 일반 학생 보다 크게 앞섰다는 수치를 제시하니 공감하는 것 같다.

맞춤 교재 개발 절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해 신문활용 글쓰기특강 등으로 NIE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NIE 예산을 대폭 늘려 전국에 100개의 ‘NIE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 NIE 활성화 방안을 내 놓았다.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적용되어 학교현장의 체형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문화 확산, 신문제작체험을 접목시켜 미래의 신문독자를 확보하고, 비탈에 선 활자매체를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수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개발의 절실함을 NIE특강을 통해 깨달았다.

47

전립선 무료검사 3월 실시 계획

토요건강포럼 12일 ‘미디어와 성’ 주제 개최

새해 들어 첫 ‘토요포럼’(건강포럼)이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중구 명동에 있는 이운수·조성환 비뇨기과 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디어와 성’으로 연사는 이운수 박사이다.

매달 한차례 열리는 토요포럼은 건강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연사를 초빙해 열띤 강연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3월에는 한국전립선협회 회원인 중앙대학교의 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대한언론인회 회원들

을 위해 3차 무료 전립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9년에 실시한 1회 무료 진료에서는 전립선 임환자 5명이 발견됐는데 이들 모두 조기치료를 건강을 되찾은바 있다. 올해는 각 언론사 사우회에서 한국전립선협회에 전립선 무료진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전립선협회에서는 본회 양해 하에 일정 인원을 뽑아 본회 회원들과 같이 진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확한 진료일은 3월 회보에 게재 예정)
(건강포럼 담당: 이보길 편집위원)

한중광의 ‘스마트교실’ 특강



한중광 본회이사

대한언론인회는 언론진흥재단의 특별배려로 12층 대 강의실을 활용, 매월 1-2회 특별강좌를 실시합니다. 그 첫 번째로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90분간 ‘한중광의 스마트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2-3회 계속될 이 강좌에 수강을 원하시는 회원은 본회 사무실로 2월 21일까지 신청바랍니다. (선착순 40명)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식지 않는 연

회우초대석

황대연

<31>

인터뷰 김재영 (본회 원로회우·전 산악회장)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황 대연 회우는 올해 ‘원로회우’의 반열에 들어섰다. 대한언론인회에서 원로 대접은 80세 이상이라야만 받게 되어 있으니 황 회우의 나이를 더 이상 캐물을 필요는 없다.

지난 1월 11일 오후 세종로 프레스센터 14층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그와 대좌 했다. 벤자민의 커다란 화분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무교동 거리, 드문드문 남아있는 한옥 지붕 위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인생종착역이 시발역

- 신묘 토끼해에 원로 회우가 되었는데...

“인생의 막차를 탄 셈이지... 그러나 밤에 떠난 막차는 서는 곳마다 종착역이지만 날이 새면 첫차가 되고 종착역은 다시 시발역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고 기세가 당당했다.

누가 질문을 해야 하는지(?) 질문자가 갑자기 뉘비뀐 것 같은 분위기다.

실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이켜 보면 우리들은 늘 이런 사이였다. 본회 부회장을 지낸 황 대연 회우는 신문사에서 꼬박 35년, 언론 관계기관의 근무한 10년을 보태면 거의 반세기를 언론에 종사한 외길 언론인이다. 또한 그는 문단에도 일찍이 등단하여 틈틈이 소설도 쓰고 때로는 방송작가나 사진작가로도 얼굴을 내밀었으며 번역서만도 10여권이 넘는다.

이와 같이 왕성했던 창작 활동을 모두 미완의 장으로 남기고 그는 문인의 꿈을 접고 말았다. 우리들 해방세대가 다 그러했듯이 암울했던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도 ‘생존’이란 냉엄한 사회 환경의 두꺼운 벽에 부딪혀 고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황 회우는 “외길 반세기는 후회도 없고 떳떳했으며 다만 작가로서의 꿈은 신문기자의 길을 가기 위해 희생양이 되었을 뿐” 이라고 웃어 넘겼다.

이와 같은 그의 사고 때문일까... 훗날 철한 키에 동안의 그는 항상 해맑고 명랑하다. 80이 다 되도록 그동안 짙어진 무거운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생각은 않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고며 세월의 무게에는 무감각(?)한 이사람! 황 부회장의 이야기는 이어진다.

-시골인 고향에서 유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부터 신문기자의 꿈을 키워 왔는데...

“나의 고향은 충북 옥천이다. 내가 자란 수북리 마을은 금강이 감도는 곳의 50여 호 작은 마을이었어... 지금은 대청댐으로 수몰이 되어 고향의 흔적이 없지. 나는 이곳에서 유 소년 시절과 사춘기를 보내면서 꽤 많은 책을 읽었어. 고전은 물론 세계 문학 전집, 시집 위인전 등을 닦치는대로 탐독하면서 문향에 취했었어. 특히 당시 일본의 대작가 기쿠치 강(菊池 寛)의 작품에 심취했었지.

신문기자의 꿈이 싹튼 것도 이때야. 당시 국내의 이름난 작가들이 신문에 많이 진출하는 것을 보고 ‘작가가 되려면 신문기자가 돼야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

내가 신문기자가 된 것은 대구에 살고 있을 때인 1959년 대구매일신문의 공채 기자가 된 것이 최초야. 입사 후 나는 이곳에서 정치부에만 10년간 근무한 기록을 세운 끝에 정치부장 대우까지 지냈어...”

황 회우는 이어 대구경제신문 편집부 국장, 기획실장, 서울지사장등을 거쳐 75년에는 조선일보로 옮겼다.

그는 이곳에서 주간조선에 근무하면서 7년간 주로 특집담당 기자로 활동했다. 이어 황 회우는 82년 니혼게이샤(日本經濟新聞) 서울 주재 특파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곳에서 외신기자로 10여년간 근무 한 것을 끝으로 근 40년에 걸친 기자생활을 마감하게 된다.

-황 회우는 신문사 외에는 종종 문단에도 얼굴을 내밀었는데...

“나는 기자 생활 이전에 꿈꾸었던 문인의 유혹을 전혀 떨쳐 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종종 그쪽도 엿보았는데 언론인 생활과 양립시키기는 힘들었었지... 내가 문단에 나선 것은 59년 대구매일 신문에 있을 당시 대중문예지 ‘소설계’에 콩트 ‘입사보증금’이 추천된 후부터였어. 그후 62년에는 창작 ‘무차원의 존재’로 문화공보부와 예총(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 주관하는 신인예술상 소설부 수석상을 받았으며 64년에는 연속방송극 ‘살아있는 낙엽’이 동양방송 개국기념 문예대상을 받는 등 하여 문단에 데뷔한 셈이지--

이중 방송극 ‘살아있는 낙엽’은 1회 30분 몰로 30회(한달간) 방송 되었으니 인기는 청취자들의 뭉치지만 작가로서는 꽤 즐거웠었지.”

황 회우는 이외에도 수필동인지 ‘헤세이 80년대’ (전 6권)에 많은 에세이를 남겼으며 ‘천안문’ ‘북경의 어느 겨울’ ‘부용진(芙蓉嶺)’ 등 10여권의 번역서도 남겼는데 본인은 한사코 이런 활동을 미완의 장으로 끝냈다고 겸손해 하지만 그 바쁜 언론생활의 와중에서 문단에도 상당한 발자취를 남긴 것이다.

한국 최고 碩學들 망라

- 황 회우가 40년이란 장수 현역시절 일선의 취재 현장이나 편집실 등에서 기억하고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75년 5월부터 82년 5월까지 만 7년간 조선일보 주간부에 근무했었어. 한 부서에서 7년간이나 근무한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야. 아무튼 글썽이나 쓴다고해서 유능(?)했거나 무능(?)했던 탓이라고 넘어가자...”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40년간에 걸친



대한 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언론계 50년을 회고하는 황대연 회우.

記者생활하며 文壇넘나들어... 소설 · 방송극 · 碩學自傳 ‘외길 한평생’ 연재 큰 보람... 본회 운

기자생활 중에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해 냈지. 그것은 일제하에서 신학문(新學問)에 몰두하여 평생을 바친 60세 이상 퇴신 한국 최고의 석학들 50여명의 연구 자전(自傳)을 쓴 것이야. 내가 직접 기획하고 인터뷰 취재해서 집필, 주간조선에 주 1회씩 1년간이나 연재한 기획물 ‘외길 한평생’이야.

이 연재물에 얽은 떠오르는 분은 국어학에 이회승, 국사학에 이병도, 교육학에 오천석, 이론화학에 이태규, 어류학에 정문기 박사등인데 이제는 모두가 돌아가시고 내가 쓴 자전만 남아있을 뿐이야. 이 자전은 1회 원고지 40장 분량으로 학문을 하게 된 동기, 학문에 얹힌 회고에라, 학문과 생애, 그 밖의 여러 가지 후학들에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정리하고, 석학들의 학설과 이론을 지면에 펼쳐 나갔어.

이 기획 연재물은 학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

황 회우는 이곳에서 특유의 달변으로 열을 올리더니 목이 마른 듯 커피 한잔으로 목을 축였다. “또 다른 이야기는 없느냐”고 부추겼으나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중얼거리

듯 말했다.

“이 친구야 별도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면 물도 빛이 되는 거라구! 그때 나는 단지 그 물빛이 되었을 뿐이야...!!”

문화역사 탐방행사 개척

-황 회우와 대한언론인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관계이며 상임이사 시절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라는 중책을 맡고 집행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월 20일 제 14차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부터였어. 나는 제12대 회장이 된 전 서울신문 사장 신 우식 회장으로부터 상임이사 제의를 받고 그 중압감에 내심 당황하면서 회 의 운영에 몇 가지의 개선책을 강구했지.

그 첫째는 사무실내의 모든 낡은 집기를 새로 바꾸고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신형화해서 업무의 능률화와 회원들의 분위기 쇄신을 도모했어.



월남 티우대통령 취임식 취재차 월남에 특파원으로 파견된 황 회우와 동료 기자들 (뒷줄 가운데가 정일권 총리, 그 왼쪽으로 네번째가 황 회우)

지 않는 언론외길 열정

황대연

- 전 매일신문 편집위원
- 전 조선일보 기자
- 전 日本 經濟新聞 서울특파원

인터뷰 김재영 (본회 원로회우 · 전 산악회장)

것은 남북의 뱃길이 처음으로 트인 금강 산호화 유람선 탐방이야. 금강산 구경에 반대하는 회원들도 있었으나 신 우식 회장의 공약이어서 두 번에 걸쳐 실행을 했지.

회원들의 탐방 순위는 생년월일까지 따져서 고령 우선 순위로 2000년 첫 해 20명, 다음 해 20명을 선발, 꿈에 그리던 금강산을 탐방했어.

탐방중 ‘선상포럼’은 언론인 다운 짝 짝 이벤트, 반응도 좋았고....

그 밖에도 그동안 예산 관계로 중단되었던 본회의 영속(永續)사업인 ‘한국언론인물사화’의 5.6권과 ‘녹취 한국언론사’를 발행한 것도 기억에 남아...”

- 황 회우는 딸부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파인테소 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1남 4녀니까 그런 말을 들을만도 하지. 그러나 그게 다 우리 내외와 태어난 아이들의 숙명이지 뭐야.... 장녀는 그림을 그린답시고 개인전시회도 몇 번인가 했고, 아들 놈은 SK의 IT서비스회사인 SK C&C에서 팀장으로 있어. 나머지 아이들도 개인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제 앞가림을 할만큼 하고 살고 있으니까 고맙고 대견스러울 뿐이야.”

우리네 부모들이 다 그렇듯이 그도 자식 자랑을 은근히 내비쳤다.

황 회우는 6?25때 군에서 중대장까지 지내 그 기민성과 활동력이 몸에 배어서인지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다.

-황 회우는 그동안 여러 단체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글세... 인생칠십 만사休(人生七十 萬事休)라....나는 팔십이 됐으니 벌써 쉬기 시작할 나이에서 10년이나 넘었는데 뭘... 헌병동우회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형태의 소식지 편집의 책임을 지고 한 7년간 지내다가 지난 연말 사임하고, 지금은 현우회에 자문위원이라ப்ப시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어. 시시한데 한 두군데 이름 걸린데가 있는데 이제 다 그만두기로 했어.”

현역생활 40년 유관기간 10년 등 반세기의 언론생활을 마치고도 모자라 아직도 봉사할 곳이 있는 팔순의 노기자! 그는 지금도 똑바로 걷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먹고 산다는 특이 체질, 거기에다 해박한 학구파다.

그리고 독서, 등산, 바둑, 사진 촬영등 취미도 다양하여 일상을 즐기고 있다. 따라서 세상에 재미없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늘 고개를 돌린다.

황 회우는 나와도 많은 산행을 했다. 북한산은 물론 멀리는 팥굴레 달마산, 월출산, 주왕산, 태백산, 덕유산, 설악산 등 국내의 유명산은 거의 올랐다.

그런데 그는 산행을 시작하면서 내뱉는 한마디가 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도 끝까지 따라붙는 근성이 있다.

바둑에서도 마치 한가지다. 황 회우와 나는 7급으로 두는데 그는 포석을 시작

世情

술잔이 없는 전배

김귀제 (본회 원로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술잔이 없는데 어떻게 전배를... 하겠지만 최근 우리 주변에서 틀림없이 있었던 일이다.

지난해 12월 9일 오후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내려널 프레스클럽에서 베풀어진 서울신문과 스포츠서울 전직 사우들의 모임인 서우회(회장 申禹植) 2010년 송년회의 밤 행사에서였다. 옆에 앉은 이순기(李亨紀)형과 함께 거나해진 눈으로 여기 저기 아는 사람 찾느라 두리번 거리고 있는 사이에 식은 어느덧 마무리짓는 전배의 순서가 되었다.

사회자가 “이미 카테일과 스탠딩뷔페를 마쳤기 때문에 술잔은 모두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식순 대로 전배시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배 선창은 1954년 수습(견습)2기생으로 입사했던 김귀제 사위가 해주시겠습니다.”

양보를 고집했던 전배 선창지명이 기억이 왔다. 사전에 신우식 회장이 전배 선창을 귀뜸 해 주기는 했지만, 설마 하니 술잔 없는 전배 선창 인줄은 몰랐다. 듻직한 회우 170여명이 손가락으로 만든 가짜 술잔을 높이 쳐들 광경이 벌어질 판이다.

옛날, 시골시골했던 망년회가 송년회로 탈바꿈 하더니, 이제 술 없는 문화송년회로 까지 변모하게 되었으니 그 풍습과 모양새 또한 달라지는게 당연한 일이지.

단상에 올라 먼저 가짜 술잔을 만들어 아홉 노고에 대해 머리부터 숙였다. “부페 식사때 드신 술잔은 벌써 거두어 갔으니 이제 빈손으로 ‘마음의 전배’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면서 다섯 손가락으로 맥주 잔을 든 시늉을 해 보았다.

웃음이 터지긴 했지만, 격식대로 조직의 번영, 회원의 건강과 단합을 꾀하는 ‘위하여’를 목청껏 외쳤다.

단상이 높은 지라 장내를 한눈으로 훑어볼 수 있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든 회우는 소주잔을 들었고, 다섯 손가락으로 둥글게 잡은 것은 맥주 컵에 틀림 없었다. 잔속은 비었지만 높이 든 술잔을 입가에 갖다 대고 꿀꺽 꿀꺽하는 회우, 멋쩍었는지 손을 올리다 말고 다소곳이 내려 놓은 사람, 제각기 좋은 대로 하면서 많이 달라진 송년회의 전배를 즐기는 듯 했다.

이날 송년회 행사는 카테일 담소-스탠



서우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술잔없이 건배제의를 하고 있는 필자.

딩 뷔페-공식행사-관소리 공연의 순으로 짜여져 있었다. 한때 망년회 하면 공식행사에서의 전배 선창을 신호로 왓자지껄 마신후 갈짓자 걸음으로 귀가 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당들의 취향이 맞지 않는다는 개인의 의견도 많았다. 그래서 술대신 문화송년회를 하자는 움직임이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도 많은 회우들이 마지막 순서인 관소리 공연때까지 남아 흥겨워 했는가 하면, 일부 회원들은 스탠딩 뷔페가 끝나자마자 관소리 공연은 질색이라며 자리를 뜨거나, 삼삼 오오 2차 술자리를 위해 나가기도 했다.

서울신문사의 밥을 먹었다는 과거지사가 공통분모 일뿐 취미도 각기 다르고 인생 역정이 고르지 않는 구성원들에게 고운 결 만 보여 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다.

끝까지 성황을 이루게 한 것은 문화행사의 내용이다. 2008년 입방울 명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립창극단 소속 김미나 명창과 박현우 고수가 짝을 지어 우리나라 사계절의 정취를 음미토록 해준 알찬 내용이 많은 회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친목회라는 조직이 계속되는한 송년행사는 매년 세밀이 되면 찾아오게 마련이고, 그것은 더욱 알찬 내용과 스마트한 진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번처럼 식사와 술을 먼저 든 다음 그 자리를 정리하고 공식행사와 문화행사를 이을 경우, 식순에 있는 전배선창이 아무래도 걸리게 된다. 전배할 술잔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배 절차 대신, 만세를 불러도 되고 결의 표명을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신묘년의 송년회도 그 모양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착실한 콘텐츠, 매끈한 진행을 미리 구상해 두는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50년을 회고하는 황대연 회우.

소설 · 방송극 · 에세이 집필 보람... 본회 운영 개선 기여



월남 티우대통령 취임식 취재자 월남에 특파된 중앙청 출입기자단 일행, (뒷줄 가운데가 정일권 총리, 그 왼쪽으로 네번째가 황대연 회우.)

둘째는 회원들의 ‘체력단련’ 행사와 ‘문화역사 탐방’의 개혁이었다. 해마다 춘추로 시행해 온 이 행사는 그때까지 본회 친목단체인 산악회가 주관해왔었는데 나는 이 불합리성을 시정하여 모든 행사의 주관을 상임이사 중심의 집행부에서 하도록 해서 회 운영의 합리화를 꾀했지.

나는 그 후 본회 부회장과 감사를 역임했어. 상임이사 시절 잊혀지지 않은

하자마자 이번에는 “아이고 다 죽었네”다. 결과는 그의 폼수도 가세해서 거의 나의 불계패로 끝난다. 하기가 폼수도 수는 수다.

황 회우는 사진의 경우도 거의 프로의 경지다. 무거운 사진기를 몇 개씩 짊어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필름 속에 담는다. 몇해 전 부인과 함께 해남 팥 굴레에 1주일간 머물면서 팥굴레 매향의 유명한 해오름 사진을 찍는데 성공한 적도 있다.

또한 금강산 뱃길이 트였을 무렵 서울신문사가 주최한 금강산 사진 응모전에 출품, 입선함으로써 아미추어의 경지

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엉뚱한 질문 하려고...”

이번에도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은 늘 그런 사이인 걸 어찌하겠는가. ㉞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298호) 10면 지용우 회우 실버파티팅 기사 내용중 최상원 회우는 최상완 회우, 독일 뱀쿠버는 캐나다 뱀쿠버,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총참모장의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고령자가 삼가야 할 3가지

①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행위 ②사업하는 자녀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 ③고령자 자신이 부업하는 것은 OK할 수 있지만 사업은 삼가야 한다.

1)예적금 3000만원~9000만원 까지 가입해 이자수입 +세금혜택

-60세 이상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생계형예금 3000만원(비과세), 농, 수, 축, 임협, 신탁, 새마을금고에 비과세예금 3000만원(농특세 1.4%만 공제). 또한 60세 이상은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예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9.5%만 공제하기 때문에 稅테크의 도움이 크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인에 한해 분기당 300만원까지 비과세, 7년 이상 만기로 2012년까지 가입가능하다. 일반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수입은 비과세이다.

2011.1.14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과산화도 원금 +이자 5000만원까지 보장되고 5000만원 초과분은 자산정리후 배분된다.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남은 자산을 나눠 받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몹시 낮다.

2)부동산 임대수입과 가격 상승

-부동산 임대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상가 빌딩 오피스텔 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 창고 주차장 등에 대한 임대수입과 부동산 자체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도토기에 단독주택이 있다면 담장을 헐고 1층에 조립식상가를 건축하거나 기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5층 건물을 신축하여 4층까지 임대하고 5층에 거주하는 방식도 있다.

-역세권이나 대학, 사무실 밀집지역 인근 거리에 있는 낡은 집을 매입(경매, 공매)하여 사무실 또는 원룸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방법이나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편리하도록 신개축해서 2~3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고 임대하는 방법도 좋은 구상이다.

老後설계와 재테크 ③

돈 될만한 收入源을 찾자



홍용수

-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 NSI자산관리 연구회 회장
- 한양대 겸임 교수

-서비스 아파트 (일명, 서비스 레지던스)를 분양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인데 서울 강남에 소재한 휴먼터치빌이 대표적이다. 이는 비교적 소·중형 아파트로 싱가포르와 홍콩 등지에서는 일반화된 운영형태이다.

-오피스텔은 임대하고 1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은 각각 통제로 매입하여 직영하는 방법도 노후생계의 보장수단이 될 수 있다.

-상가(商街)를 구입할 때는 먼저 지역 상권(地域商圏)을 보고 난후, 해당 점포까지의 동선(動線)과 규모가 큰 경쟁업체가 인근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입지(立地)선정은 사업성공의 50% 이상을 차지할만큼 중요하다. 가능하면 유동인구가 많고 위치가 좋은 역세권이면 더욱 좋겠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이나 무드사업(다방, 레스토랑, 카페, 맥주홀, 노래방, 술집, 나이트클럽 등)은 뒷골목이라도 무관하다. 상가를 운영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가 운영전략에서 품질, 가격, 서비스 등 차별화전략으로 이웃 경쟁점을 압도하는 사례도 있다.

주의할점은 큰 상점은 이웃 작은 상점을 삼킨다. 언덕배기에 있는 상점은 부적합하고 주인이 자주 바뀌는 상점은 경계 대상이다. 임대인이 유사업종을 할 때는

임차계약을 삼가야 한다. 또한 지하철내 상가나 맞은 편에 상점이 없고 한쪽편만 있는 경우는 상권 형성이 곤란하여 부적합하다. 특히 다방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 상가를 고가로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손님을 많이 동원해 속임수로 권리를 챙기고 고가로 매도하는 작전에 말

려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매입시 등기내용 분석은 필수이며 소유권자와 직접 계약해야 한다.

3)주식과 펀드투자

부자의 비결=시간과 복리 & 장기투자
-막대한 자금과 정보력으로 증권시장에서 큰돈을 벌겠다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빠르고도 연이은 작전에 개미투자자들은 맥을 못추고 손해보기 마련이다.

-초보자는 업종대표주 등 초일류 기업의 주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식이 폭락했을 때 여러차례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직접 투자 보다는 펀드를 이용한 간접투자가 바람직하다.

-펀드는 국내펀드와 해외펀드가 비교적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여러차례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2010년 국내펀드는 웃었고 중국펀드는 울었다. 최고기록을 낸 럭셔리펀드는 평

균 수익률이 40.16%였는데 올해도 이를 값을 할것인지?

최근 6개월에 35% 수익을 낸 농산물펀드, 에너지 전장에 휩쓸린 석유 등 원자재펀드, 주가연계증권인 ELS, 삼성그룹주 펀드 등과 해외펀드중에는 신흥아시아 펀드, 인도펀드, 중국펀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펀드 투자방법에는 거치식보다 매월 투자하는 적립식이 비교적 바람직하고 적어도 3년 이상 투자해야만 수익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전략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는 펀드가 투자시점을 분할해 주식매수 단가를 낮춰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고객이 목돈을 한꺼번에 거치식으로 입금하면 4개월에 걸쳐 9회로 나누어 주식을 분할 매수한다. 물론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면 매입단가를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성과면에서 차별화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10여년전 일본에서 개인재산세를 최고로 납부한 고과가와 긴조의 주식투자 방법은 주식이 바닥을 치고 마스크에서 폭락장세를 연이어 보도할 때 여러차례 분산 매입하고 상승시는 60%선에서 여러번 매각하고 주식 하강시는 10~15% 때 손절매를 반복한다고 했다.

-중국의 린 위안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투명한 기업만 골라 3번 이상 방문하여 분석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데 2003년에는 5개 우량기업에 투자하여 1억7000만위안(206억원), 2004~05년에는 저평가된 주식에 집중투자하여 2억위안(243억원)의 수익을 냈다.

-워런 버핏은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 대비 이익률, 현금흐름중시, 모든 실적지표는 최근 수년간 평균치를 확인하고 "10년 이상 투자할 기업이 아니면, 10분도 쳐다보지 말라"고 했다. 그는 실제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방어적인 투자에 힘썼다. 40

적은 경비로 즐겁게 '경로우대' 활용하기



이보길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해설위원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가는 정도의 운동량) 하루종일 앉아만 있는 게으름뱅이보다 10년 더 젊다고 한다. 하루 27분의 운동이 무려 10년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운동이든 좋으니 몸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다 돈드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곳도 꽤 있다.

경비 부담없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서울엔 여러 곳 있고 또 노인이라고 할인 혜택을 주는

곳도 여러 곳 있다. 이제부터 그런 곳을 찾아본다.

우선 여행이다. 긴 여행이라면 KTX나 비행기를 이용할 텐데 KTX나 새마을호는 30%(토일공휴 제외)할인, 무궁화호는 30%할인되며 선박은 20%가 할인된다. 비행기는 10%가 할인된다.

그러나 당일 코스 여행이라면 수도권 전철 (서울-천안, 서울-용문, 서울-춘천)이 무임이다. 아

마 대한언론학회 회원 전원이 무임 대상

"그동안 65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불렸었지만 이제 의학의 발달과 함께 생활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학계에선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노인이 되는 시점을 10년 정도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보다는 10년은 젊어졌다는 애깁니다." 그동안 대한언론인회의 '건강포럼' 강의를 맡아오고있는 이운수 박사의 말이다.

우리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을 보면 회원 반수 이상이 70대인데도 '문화탐방' 등 행사 때 보면 젊은이 기력 못지않은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긴 젊은 기자 시절 전국을 휘저으며 펄펄 날던 분들이시니 그 기운이 쉽게 떨어 질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 특별한 일이 없으니 그냥 쉬어야 한다는 건데 가만히 있는 것만큼 건강에 나쁠게 없다는 것이다. 영국 킹스 칼리지 의대의 연구 결과 매일 27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일 것이다.

서울대공원은 산책로로는 으뜸인데 물론 65세 이상은 무료입장이다.

연중무휴인 남이섬에 가면 숲속의 겨울풍경을 즐길 수 있다. 입장료는 경로우대로 4,000원(일반 8,000원).

서울 덕수궁, 경복궁, 창경궁, 비원, 종묘와 근교 능원, 국립립박물관과 국립립공원, 국립립미술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국립립국악원은 입장료 50%가 할인 된다. 목욕탕이나 이발소는 자율적으로 10~50%까지 할인혜택을 주는 곳이 많다. 또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양천구에서는 관내 504개 음식점과 목욕탕, 이용업소 등이 양천구청이 발행한 '노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노인들에게 5~5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탁구, 당구, 게이트볼을 무료로 즐길수 있게하고 있으며 가요교실을 만들어 하루 500여명이 가요시간을 즐기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9888어르신 콘서트 사업'으로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13면으로 이어집니다.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④

남자의 업병 전립선 암 예방

여자에게는 전립선이 없으므로 전립선 질환은 남자만의 것이다. 나이를 더해가는 가령(加齡)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60대 남자는 60%, 70대 남자는 70%가 전립선 질환에 시달리는 형국이라는데 내 주변에 전립선 암으로 수술한 친지가 열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많다. 전립선 암은 진행속도가 아주 늦고 병질(病質)도 마일드(?)한 편이라서 적기(適期)에 수술만 잘하면 연명(延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도 그것이 병마(病魔)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인데야 태평치고 있을 수도 없겠다. 그것도 그럴것이 전립선암은 이 환자의 60% 이상이 완치가 어려운 말기암으로 진행된 뒤에야 발견된다고 하니 대한언론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기검진 사업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나는 1980년대 후반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은적이 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오르면 휴게소마다 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찾아야 할 정도로 빈뇨(頻尿)에 시달린 나머지 일인데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으나 그 10년뒤 다시 수술대에 눕게되었다. 술마시고 인주로 네발집승의 고기를 계속 먹은 결과다. 의사들이란 도대체 수술만 할뿐 수술을 한 뒤에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이야기하지 않는것이 통례(通例)처럼 되어있다. 재발해서 또 찾아와야 장사가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것은 아닐텐데 그 버릇은 아주 고약한 일이다. 첫 수술을 한지 10년뒤 여름의 어느날 소변을 보는데 시뻘건 피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바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태평인데가 있어 놀라지도 않고 첫번째 수술을 담당했던 그 의사에게 알렸더니 큰일이니 곧장 오란다. 여러가지 검사를 한 결과 그의 사는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수술을 하잔다. 개복수술 결과 그 의사는 DNA검사까지 했으나 암이 아니라고 했다.

그 뒤로 또 10년, 나는 나름의 전립선 관리방법을 세우고 다른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작년(2010년) 여름에 병원에서 P S A (종 양 Marker)검사를 했더니 0.04의 수치가 나왔다. 관촬은 수준이다.

그동안에 내가 시행한 전립선관리 방법은 수술을 두 번 담당했던 그 의사가 가르쳐준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낸 독서의 결과가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즙(팩)을 하루에 2팩, 토마토는 1년내 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다. 게다가 전립선질환 예방 보조식품인 미국산 소 파 메 토 (Saw palmetto)를 하루 1정씩, 소 파메토는 토피바퀴 야자에서 추출한 것인데 거기에는 토마토의 붉은 색 소인 리코펜 (Lycopene)과 호박씨(Pumpkin seed)가 함께 들어있다. 토피바퀴 야자(과일)에

는 전립선을 비대하게하는 남성호르몬 (지하도로 테스토스테)의 생성을 억제하

보조식품 ‘소 파메토’ 복용 큰효과

다. 두번째 수술을 한뒤에도 그 의사는 나에게 생활수칙과 암예방 방법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 의사는 분명히 병어리는 아니던데 말이지.

동물성 지방을 내 식탁에서 몰아내고, 채식을 위주로 적게 먹고 지속적인 운동, 곧 하루 1만보 이상 걷기의 생활화로 체중의 표준화(72kg에서 60kg)를 실현했다.

식생활을 바꾸면서 마늘을 양질의 식초에 담갔다가 하루2~3개씩 먹고, 양파

는 기능이 있다. 전립선 치료약인 보로스카 보다 보조식품인 소 파메토가 증상의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미국전문 의사의 보고를 읽은적이 있다.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인 저널리스트 출신 진 카퍼(Jean Carper)가 쓴 ‘기적의 치료법’과 ‘음식-당신의 불가사의한 약’에도 소 파메토와 호박씨를 들고 있다.

전립선질환 뿐만 아니라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트집(질병)에는 활성산소가 관여하므로 항산화(antioxidant) 네

트워크를 만들어 활성산소를 쓸어낼 필요가 있다. 활성산소 소거(消去)의 에이스(ACE)로 불리는 청소부 트리오에 베타 카로틴(Beta-Carotene)과 곡물, 호두, 시금치에 들어있는 알파 토코페롤(alpha-tocopherol), 곧 비타민 E와 야채,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가 있다. 베타 카로틴은 호박, 당근, 시금치, 고구마 등 녹황색 야채에 많이 들어있으며 사람이 섭취하면 비타민A로 변하므로 전구(前驅)물질로 불린다. 폐암환자에게 베타 카로틴의 결핍현상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

해조류(미역, 다시마 등) 버섯, 호두, 땅콩 등에 많고 비타민E의 50배 내지 100배의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닌 셀레늄(Selenium)도 뺄 수 없는 구원투수로 불린다. 비타민E와 셀레늄의 복용이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실험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다.

위에서 든 보조식품들을 나는 한가지도 빠짐없이 다 복용하고 있다 표고버섯 2개에 다시마(손바닥크기)를 큰 맥주컵에 생수와 함께 담갔다가 아침에 마심으로써 혈압을 안정시키며, 비타민 E와 셀레늄을 복용함으로써 전립선암 예방의 임상실험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콩에서 추출한 성분인 소이 이소플라본(Soy Isoflavore)도 하루 1정씩 복용하고 있는데 전립선 뿐만 아니라 심장과

뼈에도 유효한 것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클럽에서 오전 운동을 마치면 사우나에서 욕탕에 앉아 명치아래를 답히는 반신욕 20분은 일과이다. 욕탕에서 가랑이 펴기 200번도 일과이다. 이렇게 하고도 전립선질환이 오면 도리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나로서는 건강하게 살다가 가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다.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한 보장은 없다. 가능성의 추구다. [4]

12면에서 이어집니다.

오페라단, 뮤지컬단, 시극단 등 6개 예술단 공연전에 열리는 드레스리허설(본공연과 똑같이 총연습)에 노인들 무료관람을 할 수 있게 했다.(복지과에 문의하면 알수있다)

또 스포츠로 프로야구는 구단에 따라 무료 또는 3~4천원정도 할인 해주고 있고, 일반 영화관인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4천원 할인된 요금을 받는다. 단 3D영화는 제외. 그리고 서울 두 곳에 있는 실버극장을 소개한다.

먼저 종로 탑골공원 뒤에 있는 허리우드극장은 ‘허리우드클래식시네마’ 실버극장으로 다시 태어나 57세 이상 노인들에게 입장료 2천원을 받고 있으며 상영작은 1950년대와 60년대 상영했던 추억의 명화가 대부분이다. 이 극장에서는 노인 입장객들에게 추억의 국화빵을 무료로 제공한다. 좌석은 300석. 1일 3회 상영. 또한 ‘추억의 LP박스’를 운영해 LP디스크로 신창곡을 들려주기도 한다.

실버극장 또 한곳은 서대문 로터리에 있는 전 화양극장-지금은 ‘청춘극장’으



실버영화관인 ‘허리우드 클래식 시네마’

로 이름을 바꿔 달았는데 여기서도 낙원동 실버극장처럼 추억의 명화를 골라 하루 2회 상영 하고 있다.

이 극장은 55세 이상이면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 2천원을 내면 오전 10시부터 영화보고 여기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오후 6시까지 즐길 수 있다.

문화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엔 연극, 웃음치료, 마술강좌, 포크댄스 수업

을 할 수 있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는 ‘추억의 버라이어티쇼’를 관람할 수 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추억의 스타와의 만남’도 있다. 그리고 커피와 차, 팝콘을 무료로 제공하며 신문과 책도 비치해 놓고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1시엔 DJ가 음악 신청을 받아 음악을 들려주기도 한다.

또한 ‘어르신 상담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영화는 하루 2번 상

영하고(11시와 3시)상영시간 사이엔 연극치료, 웃음치료 등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당일 입장권을 보여주면 인근에 있는 국수집과 순대집에서 500원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참고로 이달 상영작을 보면 ‘로마의 휴일’ ‘효녀 심청’ ‘내가 마지막본 파리’ ‘이조여인 잔혹사’ ‘금지된 작난’ ‘불꽃’ ‘맨발의 청춘’ 그리고 ‘사랑은 비를 타고’다.

끝으로 성북동 길상사에 있는 ‘고운님 갤러리’(실버갤러리)도 둘러 볼 만하다. 노인을 위한 작품전, 예술, 읽기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삼가연정(三嘉連亭: 세가지 즉 책, 차,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울리는 정자란 뜻)도 가볼 만하다.

다양한 책과 기품있는 전통차, 맛과 모양이 어우러진 커피와 웰빙쿠키를 즐길 수 있다.

이제 입춘대길(立春大吉)-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시지요. 여행을 떠나든 구경을 가든... [4]

회우들이 펴낸 新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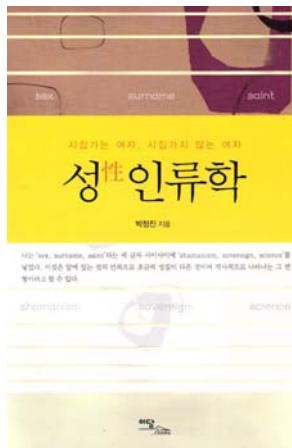
박정진 회우 '성 인류학'

인류학의 대중화를 위해 인문학적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는 인류학자 박정진씨가 이번에 그의 인류학적 성과의 여섯 번째 책인 '성(性) 인류학'을 펴냈다. 성인류학은 인간의 문화가 성(性)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씨 성(姓), 그리고 성인 성(聖)으로 변해가는지를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책이다. 그에 따르면 성(性)과 성(姓)과 성(聖)은 결국 공통의 바탕(matrix)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순환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동서고금의 성(性)과 관련된 고전들을 망라하고, 그것의 이성주의적 입장과 감성주의적 입장, 그리고 의식적 입장과 무의식적 입장을 망라한 그는 라캉과 푸코를 비롯한 서구의 현대철학에서 등장하는 '욕망의 이론'과 '성의 역사'를 뛰어넘은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는 특히 성(性)을 보편성의 입장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반성의 입장에서 풀어감으로써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려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학계에서는 평가한다.

박정진 씨는 보기 드문 우리시대의



글쟁이로 지금까지 백권의 책을 썼으며, 지금도 계속 집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의 인류학적 성과만 들더라도 '예술 인류학'을 비롯해서 '불교인류학' '종교인류학' '단군신화에 대한 신연구' '예술인류학의 실험적 성과물인 '굿으로 본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읽기'에 이어 이번에 '성 인류학'을 펴냈다. 그는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무예인류학'의 집필을 마쳤다. 또 현재 '철학인류학'을 집필 중이다.

그의 이러한 성과는 한국 인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인문학의 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성인류학은 이밖에도 'sex, sumame, saint'라는 세 글자 사이사이에 'shamanism, sovereign, science'를 넣어 성과 역사와 종교가 어떻게 긴밀하게 작용하는지를 미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아울러 이들의 하위 퍼포먼스(performance)로 'sport, song, story, screen, spectacle'에 대한 문명사적 전개를 통해 인간의 문화를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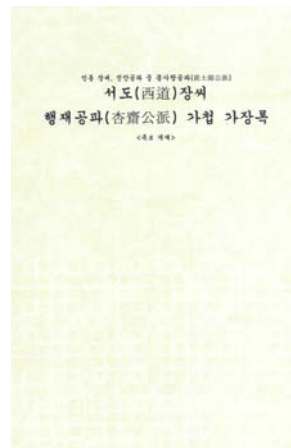
장두원 회우 '한글판 족보 가장록'

본회 장두원 회우(전 KBS 보도본부주간, 현 종합일간신문 아시아투데이 부회장)는 한글판 가첩 가장록을 포함한 족보를 만들었다.

장회우는 각 가정에 한문족보는 있지만 서재에 먼지투성이로 보관되어 있을 뿐, 한문으로 되어 있어 알아보는이도 없어 자손으로서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 등을 기리고 본받아 새로운 마음을 다잡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한글족보와 가장록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두원 회우는 방대한 인동장씨 전체를 엮을 수 없어 행재 공파로 국한했고 뒤편에 한문 원문족보를 곁들여 스스로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족보제작의 특징은 옛 선열들에게는 진사급 이상만 되어도 그들의 행적을 기리는 가장록을 만들었으나 최근의 항일 독립투사, 국회의원, 세계적 석학 등에 대하여는 텅그러니 이름 두자만 올라있어 역사가 저들의 가장록을 만들어 족보에 올리게 되었다.

이번 족보의 특징은 사위는 물론 따님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고 며느리의 이름도 성받이가 아닌 이름전체가 포



함되어 있어 남녀평등 사회에서의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도록 했다.

또 족보를 증가해, 진안택, 부안택 등 의택호(宅號)를 붙여 인명을 찾도록 했는데 이택호의 진안택은 진안현감을, 부안택은 조선조말 부안군수를 했다고하여 붙여진 택호인데 40여 택호에 천여명의 자손이 등재되어 있다.

이밖에도 사대부 가정의 인사예법, 예기에 나오는 삼불거, 천주교, 기독교, 불교, 유교신도들의 제사 및 추도식 방법, 우리집안 가정의례 준칙에 의한 또는 주자 가례에 따른 제찬 진열 등도 곁들여 후손들이 이를 보고 예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258페이지로 엮였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성씨만 알지 원조 선조 중시조 등에 관해서는 물론, 6촌이 넘으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현재태속에서 한글족보의 탄생은 꼭 필요할 것 같았다.

장두원 회우는 언론계에서 한평생을 바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족보를 만들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48

장정우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그의 뜻대로 따라 부르기로 하자.

5·16군사정권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해 연말께 언론계 좌익분자를 가려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언론계는 왜 그런지 찬바람을 느꼈다.

어느날 장정우로부터 서울신문에 있는 나에게 전화가 왔다. 점심이라도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 친구 점심 살줄도 아내. 내심 잡히는 것이 있었다. 약속된 장소는 음식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였다. 정시에 그가 나타났다. 대뜸 "편집국에 낯선 사람이 들어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죽을 맛이라고 털어 놓았다.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 "진작 내말을 들었으면 이런 곤경에 빠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점심식사도 맛이 없었다. 그와는 몇백은채 헤어졌다. 몇달이 흐르고 그를 잊을 줄이 없었던 곤경도 아무 일없이 넘어갔다. 언론계에 널리 알려진 '김현재 사단'이 서울신문을 장악했다.

김현재 편집국장, 조기호 편집부국장, 이목우(李木雨)사회부장, 장정우도 함께 왔다. 사회부차장으로... 나는 해군사관학교 졸업반 생도로 구성된 원양훈련함대를 따라 동남아(필리핀, 사이공, 싱가포르, 대만기류)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 덕에 적도를 넘어 보는 귀한 경험도 했다. 그동안 심한 풍랑으로 고생했던 일행은 그리 덤지도 않고 잔잔한 파도에

신기함을 느꼈다. 함장의 말로는 적도해상은 언제나 잔잔한 기상이라고 했다. 귀국해서 첫 출근을 하니 그동안 견습기자 시험에 합격한 여기자 둘이 있었다. 그중 한사람이 신동식(申東植)기자였다. 남자들뿐인 삭막한 편집국에 여기자가 둘이나 되니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신기자는 서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문화재관리국까지 맡고 있었다. 거칠기만한 남자기자 사이에서 신기자는 커다란 특종을 해냈다. 최인규(자유당 내무장관)사형수의 아내와 가족이 브라질로 이민간다는 내용이었다. 너무 소킹한 뉴스였다. 가족이 성모병원에서 이민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받은것이 단서였다.

그런데 데스크를 보던 장정우는 리더 기사(전문)를 잘못 썼다고 크게 나무랐다. 한두마디면 끝날 것을 심하게 나무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장정우와 신동식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전쟁 중군기자

랐다. 끝내는 자존심까지 건드렸다.

신기자는 평평 울었다. 그래도 장정우는 계속 질타했다. 나는 참지 못해 "자네 병아리적을 생각해라. 대학을 갓 나온 여성이니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왈각 쏟아지려는 큰 소리를 용케 참았다.

나는 속으로 신기자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신기자는 다음날도

출근했다. 월남파병 맹호부대 장병들이 포획해서 보낸 비단구렁이가 창경원 동물원 우리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는 특종을 했다. 특종 제3탄은 역시 맹호부대에서 잡아 보낸 꽃사슴도 사라졌다는 사건.

장정우는 빙긋거리며 어쩔줄을 몰랐다. 나는 속으로 자네가 연거푸 강한 편지를 두번이나 맞았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내가 "어찌된거요"하자 신기자

는 "사육사들이 몸보신한 것이지요"라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군부는 두번에 걸친 동물실종사건이 게재된 신문을 월남에 보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신기자는 그후 국장대우로까지 승진했고 대우그룹 산하 서울언론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영국유학을 했다.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그의 부군은 선풍 히락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연 2,000달러의 장학금으로는 런던에 있는 대학엔 등록할 수도 없어서 런던에서 열차로 2시간거리인 동북지방의 HULL UNIVERSITY에서 1년을 버텼다. 그동안 서울신문은 월급외에 아무런 수당도 주지 않았다.

HULL이 자리잡은 곳은 항구도시이고 영국노동당의 본거지.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영웅 윈스턴 처칠수상은 재선될 것을 확신했으나 결과는 노동당이 승리해서 세계가 깜짝놀랐다.

영국국민은 전쟁승리는 승리이고, 이전 생활이라며 보수당에 등을 돌렸다.

신국장은 귀국후 '여성복지' '여성근로차별' '출산휴가' '직장여성 육아문제' 등 HULL UNIVERSITY에서 닦은 이론을 서울신문과 조선일보에 실었다.

국무총리실은 그에게 표창장과 그후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과묵한 탓인지는 몰라도 남자기자가 기사로해서 국민훈장을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49

溫故知新

장보고 장군제

오는 2월 17일은 정월대보름이다.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을 이어오는 전국의 수많은 마을이 이날 당제(堂祭)를 지낸다. 갖가지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풍작, 주민의 건강과 소원 성취 등을 천지신명과 조상들에게 비는 것이다. 전남 완도읍 장좌리의 장보고장군제(張保皋將軍祭)는 정월대보름 당제 가운데 전국적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진 당제로 손꼽힌다. 장좌리는 1200년 전 바다의 영웅 장보고가 무적함대의 기지로 삼고 동양 삼국의 해상항로를 호령하던 청해진(淸海鎭) 옛터다. 완도읍에서 5km 떨어진 장좌리는 장보고가 있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해서 전에는 장재리(張在里)라고 불렀다. 마을주민들은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면 장보고장군제를 당제로 베풀어 그의 위업을 기리고, 마을의 발전과 새해의 풍어를 기원한다.

장보고당제는 정월대보름 전날 밤 장좌리에서 170m 떨어진 장도-장군섬 정상에 장보고신당에서 당제를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제가 끝나면 굿종패와 주민들은 여러 척의 고깃배에 나누어 타고 마을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다. 울긋불긋한 고깔 쓰고 바지저고리에 드림을 받쳐 맨 굿종패가 징징 뚱뚱 쿵덕쿵덕 북 장구 쾅과 리징 등 사물을 흥겹게 치고 두드리며 덩실덩실 으쓱으쓱 어깨춤 궁둥이춤을 신명나게 추면서 마을로 돌아오는 것이다.

신명나는 풍물소리가 이제 막 잡에서 깨어난 바다와 하늘을 울리면 그 옛날 바다의 영웅 장보고의 무적함대가 함차게 노 저어 나갔을 그 바다 그 뱃길도 이들의 신명에 화답하듯 흥겹게 일렁이며 춤추는 듯하다.

일세의 영웅 장보고는 신라 흥덕왕 3년(828)에 당에서 귀국하여 이곳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들을 소탕한

뒤, 신라·당·왜 삼국 무역의 중심지로 삼았다. 그가 제해권을 장악한 이후 동양 삼국의 해상항로는 안전하게 되었고 국제무역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문성왕 3년(841)에 벌어진 신라 왕실의 추악한 왕위쟁탈전에 휘말려 장보고는 정치꾼들에게 비열하게 암살당했고, 청해진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다.

천신만고 끝에 입금이 된 신무왕은 등창이 나서 죽고 태자 경응(慶應)이 왕위에 오르니 문성왕이다. 문성왕도 아버지 신무왕과 함께 청해진에서 난을 피하며 장보고의 신세를 진 바라 그에게 진해장군(鎭海將軍)을 제수하고 많은 선물을 보냈다. 썩어빠진 왕족과 귀족들의 왕위 다툼, 권력 쟁탈전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으나 약자를 돕고 의협심이 강한 성품에서 힘을 빌려 준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서 받은 것뿐이었다.

그런데 일단 왕위를 굳히고 정권을 안정시킨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청해진과 장보고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 막강한 군사력과 재력으로 혹시 판마음이라도 먹는다면(?) 정권은 원래 의심이 많은 게 속성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가 양측 사이에 걸려 있었으니 그것은 신무왕이 청해진에서 군사를 얻을 때 장보고에게 “이 일이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성공하기만 하면 장군의 딸을 맞아 며느리를 삼으리다”고 한 약속이었다. 비록 약속을 한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매듭을 짓고자 문성왕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만고에 없다고 모두 반대했다. 진골(眞骨)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지녀도 6두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출신 성분을 중시하는 신라에서 근본도 모르는 섬 촌놈의 딸이 왕비라니 말도 안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왕은 이미 박씨 부인이 왕비로 있어서 차비(次妃)로 맞이하려던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 소문이 장보고의 귀에 흘러 들어갔다. 급할 때는 쫓아와서 통사정을 하고 원하지도 않은 약속까지 먼저 해놓고는 부귀영화를 다시 누리게 되니까 이제 와서 판소리를 해? 그만둬라 그만둬! 썩어빠진 놈들! 장보고가 내뻗은 소리가 발 없는 말이 되어 금성으로 달려갔다. 왕과 대신들은 전전긍긍 어쩔 줄 몰랐다. 막강한 세력을 가진 장보고가 화집에 군사들을 몰아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어육이 될 판이었다. 장보고를 누가 무슨 힘으로 막는단 말인가...

이때 나선 자가 열장. 결국 조정에서는 암살이란 비열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청해진으로 달려간 열장은 그럴

듯한 거짓말로 장보고의 비위를 맞췄다. 장보고는 대범한 인물인지라 별 의심 없이 열장을 맞아 잔치를 베풀고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윽고 밥이 깊었다. 장보고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열장은 칼을 뽑아 장보고의 가슴을 힘껏 찔렀다. 일세의 쾌남아, 바다의 풍운아 장보고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으니 841년 11월이었다. 장보고가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모반을 일으켰다면 진작 군사를 일으켜 풍우처럼 휩쓸어 버렸지 우유부단하게 해를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의 뜻은 드넓은 바다에 있었지 속 좁은 소인배의 추악한 음모가 난무하는 육지에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다.

청해진의 활발하던 교역 활동은 이내 마비상태에 빠져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문성왕 13년(851) 2월 청해진 핵파로 찬란하던 해상왕국은 영화의 막을 내리고 그 주민들은 내륙 깊숙한 벽골제(碧骨堤), 지금의 전북 김제로 강제 집단 이주당하고 말았다.

장보고는 그렇게 죽어서 신장(神將)이요 수호신이 되었다. 왕조 중심의 편협한 정사(正史)에서는 중앙정계 진출이나 피하다 몰락당한 시골 장수로 무시당했지만, 그가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우리 역사상 최초로 바다를 호령하던 곳, 청해진 옛터 완도의 향토사 속에서는 그의 위대한 기상이 살아 남아 여전히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일세의 풍운아 장보고의 암살은 장보고 개인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해양진출, 해상제패의 원대한 꿈을 꾸어보기는커녕 비좁은 국토 안에서 집안싸움을 하거나, 몽골족·여진족과 왜적들에게 침범과 노략질을 연거푸 당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통렬한 역사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필자]

지난 연말 정치자금법 개정안 즉 ‘후원금 불벌법(不罰法)’이 여론의 역풍에 밀려 연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신나간 국회의원에 오버랩되어 정신 똑바로 차린 기사를 발견하여 다행이다. 바로 말하면 후원금 ‘불벌법’ 입법화를 여론의 역풍을 업고 무산시킨 기자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우리사회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와중에서 국회의원에는 뇌물여부를 따지지 않는 ‘후원금 불벌화’를 추진했다.

단체의 정치자금지불을 허용해 연간 3억 원 한도 내에서 의원 한 명에게 연 1,000만원을 후원할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 범죄는 선관위의 고발없이 기소 할수있게 하여 사실상 불법정치자금법에 대한 형사처벌을 봉쇄한 셈이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금기부도 허용해서 헌법 위반 논란도 예상되었다. 이러한 ‘후원금 불벌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을 외치던 친노 386그룹의 대표적의원인 민주당 백모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 12명이 서명했고 한나라당의원도 일부 동조한 분위기였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다

국회의원 양심찌른 어느 記者

른 자연인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한 특례법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특례법’, ‘직업이기주의법’이라는 등의 국회 안팎의 비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서둘러 진행되었다.

비판적인 기자들마저 정치권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북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쓰나미에 휩쓸려 이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일보 정치부 조수진 기자는 2010년 12월 3일, “정치자금 치외법권지대 만드나”라고 보도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가자의 눈’ (2010.12.6)



박 용 운

· 본회 원로 회우
· 전 동아일보 출판국장대우

을 통해 “청목회 수사대상 의원들 스스로 면제부를 만들다니...”라며 정치권의 후안무치를 꾸짖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국회의원의 양심을 찌른 것이다. 결국 국민적 관심인 중대한 정치변화를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슬쩍 해치우려던 국회의원들의 시도를 꺾었다.

그러나 백지화는 아닌듯 싶다. 여야 의원 다수로부터 ‘깊은’ 공감대를 얻고있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여론에 밀려 보류한 것일 뿐 한심한 작태는 언제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후 몇가지를 보완

한 정치 자금법을 처리한다고 했으니 연초를 잘 지켜봐야 할것 같다. 기사에도 나왔듯이 정치인들의 직업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후원금을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밖에는 생각 되지 않는다.

후원금 불벌법을 만들기보다는 먼저 정치인들이 양심을 지키고 공정한 정치 후원금만 받으며 돈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

그리고 왜 국가불안사태로 국민의 관심이 정치가 아닌 국가 불안시기에 있을 때 이렇게 정치인들에게만 좋은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하는지 그 속셈이 한심스럽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불안시기에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것에 대해서 정치권은 모두 반성해야 할것이다.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진일보 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양심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기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길 바란다. [필자]

歴史현장 北・中접경지대를 가다

김휴선

(본회 회우·전MBC보도국부장
· 현 KOBACO 공익광고협의위원장)

城)으로 발길을 옮겼다.

호산장성은 단둥에서 북쪽으로 약 31km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약 500여 년전인 1469년에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한 면은 산으로 나머지 3면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 형세가 마치 호랑이 모습과 같다 하여 호산장성(The Great Wall of Tiger)이라 불렀다고 한다. 정상 높이는 146m로 처음 출발지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올라 갈수록 가파른 계단이라 제법 숨이 차고 높았다. 정상까지는 9개의 성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일행중 등산을 할 줄 아는 몇몇 사람만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정상에서 산 밑을 바라보면 압록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강변에는 북한의 방산마을이 보인다. 멀리 신의주와 고려 말 이성계장군이 군사를 뿔었다는 위화도도 보인다.

호산장성은 고구려 고성인 박작성(泊灼城)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중국 문물보호국(문화재청)은 최근 10년 사이에 사료 재해석과 유적 재발굴이라는 명분으로 만리장성 동쪽 기점을 기존의 하북성 산해관(山海關)보다 훨씬 더 동쪽으로 떨어진 압록강 하류의 요녕성(遼寧省)에 있는 호산장성이라고 선언했다. 원래 만리장성은 간수성 가옥관에서 산해관까지 6,300km 라고 중국 사서에는 적혀 있다. 그런데 중국은 종전 기록보다 더 긴 8,851.8km라고 발표를 했다. 얼핏 장성이 길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 고대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東北工程) 논리가 숨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음모에 분노하며 역사를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호산장성에는 박작성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고 고구려 때 왔던 옛 우물터도 남아 있다. 중국은 1990년 박작성을 복원하면서 장성 이름을 박작성에서 '호산장성'으로 바꾸었다.

北韓, 식당에서도 외화벌이

어느 덧 날이 저물어 간다. 우리 일행은 씩씩한 마음을 뒤로 한 채 호산장성을 떠나 버스로 단둥시내로 향해 달렸다. 압록강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길을 따라 강 건너편에는 얼어붙은 북



압록강 표지석에 선 필자.



한발짝만 넘어서면 북한땅이라는 '일보과' 표시.

한 땅이(凍土) 한눈에 펼쳐진다. 들녘에는 타작하지 않은 벼가 모듬으로 세워져 있었고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직 때가 이른지라 압록강은 다 얼지 않았고, 배 한 척 없어 한적하기까지 하다. 차로 30여분을 달렸을까 일행은 네온사인인 반짝이는 단둥시내로 접어든다. 저녁을 먹기 위해 북한당국에서 운영한다는 '고려식당'에 들렀다. 그날따라 단둥시내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스산하고 추웠다. 고려식당은 어느 중국식당처럼 보였으나 종업원들은 한복을 입고 손님을 받고 있었다. 간판을 비롯해 모든 집기와 안내가 한글로 쓰여져 있어 친근감까지 든다. 저녁은 그대로 한식으로 맛있게 먹었다. 고량주도 한 순배 돌았다. 식사를 하고 난 후 시중을 들던 종업원 5~6명이 단복으로 갈아입고 30여분 가량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쇼를 하면서 일행을 즐겁게 해 주었다.

丹東과 신의주는 천당과 지옥

단둥을 방문한지 이틀째 되던 날, 우리는 '중조우의교(中朝友好誼橋)'라고도 부르는 '압록강 철교'를 구경했다. 일본인들이 건설한 압록강 철교는 원래 오고 가는 2개교였으나 6·25때 미군의 폭격으로 '재래철교'는 단둥에서 3분의 2쯤 가다가 끊어졌고, 1943년에 건설했다는 신철교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북한과 중국은 70%의 교역을 이 철교를 통해서 하고 있다. 지난번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철교를 이용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20여분간 유립선을 타면서 바로 손에 잡힐듯 한 북녘 땅 신의주를 바라보았다. 신의주 강변에는 날이 추운 탓인지 민간인은 한 사람도 찾아 볼 수가 없고

초병인 듯한 젊은 군인 몇 명만이 보였다. 이곳 단둥 사람들은 흔히 신의주와 단둥을 '지옥과 천당'에 비유하기도 한다. 원래 단둥은 중국의 변두리 도시로 예전에는 안둥으로 불렸다고 한다.

단둥 전쟁기념관에는 '항미원조전쟁'이라고 이름 붙여진 6·25전쟁에 대한 중국 측 시각에서 조명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또 상흔(商魂)에 밝은 중국은 파괴된 압록강 철교를 그대로 잘 보존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단둥은 예전에는 신의주보다 작은 중국 변방의 쓸모없는 작은 도시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 발전된 단둥은 중국의 개방정책과 실용주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단둥의 경제개발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도시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쪽은 시장경제의 성공을 과시하듯 새 아파트와 고층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한쪽은 삶에 신음하면서 겨우 연명만하고 있는 느낌이다.

新압록강대교 지난 연말 착공

중국정부와 북한은 지난해 31일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착공하면서 북·중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결속을 과시했다. 물론 본격적인 공사는 날이 따뜻해지는 3월경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공사비는 17억위안. 우리 돈으로 약 2,9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중국은 그 대가로 위화도를 100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개발권을 따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 2009년 나진, 선봉항 개발권도 얻어 냄으로써 10년간 항만 이용권을 확보해놓고 있다. 중국은 이미 동북 지린(吉林)성에서 생산된 석탄을 나진, 선봉항을 거쳐 동해를 지나 해로(海路)를 통해 남방지역으로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북·중 경협(經協)이 첫 발걸음을 시작 한 것이다.

불거진 죽음의 땅 신의주

마치 중국의 단둥은 홍콩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북녘 땅 신의주는 일제 시대 때 지었다는 2~3층짜리 우중충한 공장 건물들만 띄엄띄엄 보였다. 아파트나 고층 빌딩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고 웬지 쓸쓸하고 삭막한 죽음의 도시 같아 보였다. 공장 안의 기계들은 이미 고물로 다 빼다 팔고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고 한다. 높은 굴뚝에는 연기 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우리가 기념사진 몇 장을 찍고 돌아올 때는 벌써 저녁 5시 반이 됐다. 어둠이 내려를 편다. 단둥을 미주 보고 있는 신의주는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죽음의 도시로 변했다. 김정일 부지는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인가. 어떤 민족이기에 북한을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만들어놓았단 말인가? 같은 동쪽으로서 참으로 분개하고 서글픔마저 들게 한다. 우리 일행은 북한 동포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캄캄해지는 북녘 땅 신의주를 뒤로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둥을 떠났다.

지난 연말에 어느 모임이 있어 대련을 거쳐 단둥(丹東)일대 중국과 북한이 맞닿아 있는 조·중(朝·中) 접경지대를 이틀간 방문한 적이 있다. 단둥 일대는 흔히 TV에서 많이 보아 온 터라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둥에서 차로 약 30~40분쯤 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압록강 상류에 일보과(一步跨)라는 곳이 있었다. 일보과란 북한 땅이 지척(咫尺)에 있다는 말이다. 한 발짝만 앞으로 발을 내 디디면 북한 땅이고, 뒤로 후퇴를 하면 중국 땅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한다. 물론 중국과 북한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이고 보면 하나 이상할 것이 없지만 마음대로 남북한 국경을 못 가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소 생소한 단이다. 일보과는 주로 남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라 꽤 버렸다. 따뜻한 여름철에는 하루에도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씩 찾는다고 한다.

바로 앞의 일보과는 북한의 하중도인 우적도(于赤島)와는 3~4m되는 작은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한국의 관광객에게는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다. 필자가 그 곳을 찾았을 때는 12월 겨울이라 그런지 서리가 하얗게 내려 있고, 얼음이 얼고 바람이 부는 차가운 날씨였다. 안내원 말로는 "바로 앞에 보이는 철조망이 북한 땅"이라면서 "저 멀리 들판을 지나 보이는 마을이 북한의 '방산마을'"이라고 한다. '방산마을'은 군인들만 사는 집으로 영관급 이상만 산다고 하는데 비교적 잘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마을은 잘 정리돼 있었고 30여 가구에 70여명이 산다고 한다. 마치 남한의 옛날 구호주택 같은 그런 집이다. 임진강 건너 '대성마을' 같은 전시용 주택처럼 보였다. 한마디로 김정일 집정은 부자는 군부를 잘 살게 해 줬지만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도 알 수가 있었다.

바로 일보과 앞에는 경계선인 철조망이 넘어져 있었는 데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 우리의 삼엄한 38선과는 비교가 된다.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흔히 말하는 북한의 꽃제비(거지)들이 이곳 독에 나와 손을 벌리며, 구걸행각을 한다고 한다. 우리가 그 곳을 찾았을 때는 강 쪽이 그리 넓지 않은 개천에 5~6명 정도가 탈수 있는 조그마한 유립선 서너척이 을싸년스럽게 떠 있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물이 빠져 배는 오가지를 못하고 묶여 있었다. 수로에 물이 가득 차는 날이면 북한 땅 우적도를 한 바퀴 돌아오는 데 10여분이 걸린다고 한다. 요즘은 미국 돈으로 20달러, 중국 돈으로 200위안이라고 한다. 특히 남한에 살면서 고향을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많이 탄다고 한다. 이들은 강변에서 빨래하는 아주머니나 초소 경비원 또는 독에 나와 있는 꽃제비들에게 먹을 것과 현금으로 몇 십 달러씩 많게는 몇 백 달러씩 담배갑(匣)이나 물을 넣은 비닐봉지에 싸서 던져 준다고 한다.

虎山長成을 만리장성 起点으로

우리 일행은 일보과를 뒤로하고 만리장성의 첫 출발지인 호산장성(虎山長

우리들 모임

角木會



앞줄 좌로부터 지용우, 박승탁, 홍인근, 지성환장군, 뒷줄 좌로부터 전중만, 이두석, 구중서, 김정서 회우 (2011년 1월 27일 낮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에서)

70년대 軍출입 기자들 매달 만나 열띤토론

각목회는 70년대에 국방부를 출입하던 기자들이 정년퇴임 후에 모여서 만든 친목회의 이름이다. 그런데 왜 하필 ‘각목회’냐고? 국방부가 삼각지에 있다고 해서 각(角)자와 목요일(말목)에 만난다고 목(木)를 합성해서 지은 이름이니 알고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각목회의 역사는 꽤 오래다. 1980년12월29일에 첫 모임을 가졌으니 벌써 30년도 넘게 지속되는 끈끈한 모임이다. 각목회를 만들게 된 동기는 당시 동아일보에서 출입하던 이연교(李顯敎)기자가 불의의 교통사고에 의한 달팽이관과괴로 청력을 잃어 기자생활을 그만 두게 되자 “우리도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하자”는 최연장자 박승탁(朴升鐸, 84세)선배의 제안으로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첫 모임은 80년 12월 29일 국방부에서 가까운 남영동의 부대고기집에서 있었다. 당시 회비는 5천원. 30년전이라 5천원으로든 그런대로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었다.

우리 각목회 멤버들은 4~5년간 국방부를 커버하는 동안 정래혁(丁來赫), 유재흥(劉載興), 서종철(徐鐘喆) 등 3명의 국방장관을 겪었다. 그 중에 정래혁 장관은 시종 기자단과 사이가 벌어져서 기자들이 장관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기간이 길었다. 아쉬운 쪽인 정장관이 먼저 휴전(?)을 요청해서 휴전은 성립됐으나 ‘만남의 장소’ 문제로 다시 자존심싸움을 벌이다 결국 중간접인 장군식당에서 만났던 해프닝은 지금 생각해도 어린이 장난 같은 일화였다.

동시대의 국방부출입기자들의 명단을 보면 쟁쟁한 면면임을 가늠할 수 있다. 박승탁(朴升鐸·전 한국일보 사회부장대리·주한 미대사관 공보고문) 이도형(李度衍·전 조선일보 주일특파원·한국논단발행인 겸 주필) 구중서(具宗書·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정치학박사·한국문명사연구소 소장) 최규장(崔圭莊·작고·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이철(李哲·전 서울신문기자·재미논설위원) 지용우(池龍雨·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전중만(田鍾萬·전 연합통신 심의실장) 홍인근(洪仁根·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논설위원) 김정서(金正瑞·전 동아일보 외신부장·논설위원) 박창신(朴昌信·전 MBC 부장·삼척 MBC사장) 이두석(李斗石·전 중앙일보 사회부장, 세계

일보·문화일보 편집국장·내일신문 고문)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대화가 고루 배분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너무 강한 어떤 특징인에 의해 발언권이 독점당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바로 ‘원조 우익’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논단의 발행인인 이도형이 그 사람이다. 이 사장은 누가 뭐래도 대단한 집념과 신념의 사나이이다. 좌파와 진보성향의 인사들로부터는 ‘불온서적’이라는 소리까지 듣고있는 극우잡지 ‘한국논단’을 1989년 창간 이래 소신과 집념과 배짱으로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감탄할 정도다. 한국논단은 1997년 10월8일 대통령 선거직전에 이도형발행인 주도로 대통령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른바 대통령후보들의 사상검증 대토론회를 벌여 조목조목 인물들을 해부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명예훼손 송사로 재산을 날릴만큼 악연을 맺은 장본인이다. 인간 이도형은 자신을 ‘극우 보수’라 지칭하면 필쩍 뚱다. 극우라면 미국의 KKKK다이나 작가 미시마 유기오류라고 항변한다.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세력에 대한 감시꾼”이라는 주장이다. 八月이 내일 모레 나이(79세)라 붓끝이 무덜만도 한 데 이도형의 글은 아직도 뾰족하고 서슬이 푸르러 촌철살인감을 느낄 정도다.

각목회의 구중서(具宗書)박사도 유능한 언론인이자 학자 겸 역사소설가로 정평이 나 있다. 대한일보와 중앙일보기자로 활약하다 논설위원으로 명사설을 써오던 그는 경기도 강화가 고향인 만큼 우리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몽고사 연구에도 남다른 집념을 가져 몽골제국의 시조인 ‘칭기스칸’과 몽고의 침략과 항몽정신을 그린 대하역사소설 ‘삼별초’(三別抄) 등 총 11권의 역사소설을 발표하는 정력을 과시했다.

청, 장년시절에 만든 각목회모임이 회원들 모두가 칠순, 팔순 노인이 된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을 탈 없이 지탱해 온 것은 이 모임을 사랑하는 회우들 모두의 변함없는 애정과 우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돈 천원까지도 공평하게 쪼개는 알뜰살림으로 투명하게 총무일을 맡아 애를 쓴 김정서 회우의 노고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는데 회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지용우(본보 논설위원)記

김명구 원로 회우 별세

김명구 본회 원로회우가 지난 1월 7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장례식은 1월 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독교 의식으로 치러졌다. 대한언론인회는 발인 하루 전 1월 9일 오후 4시 홍원기 회장과 많은 원로 회우들이 참석한가운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광희 김준하

김운곤 남시욱 손일근 회우가 참석했고 강승훈 계성일 신우식 이순기 이해복 회우가 다녀갔다. 조사는 정운종 상임이사 가 읽었다.

고 김명구 회우는 1930년 7월 충북제천에서 출생, 선린상고에 입학했다 제천



한때 예그린 약단 대표를 맡기도 했다. 재무부 공보관, 한국화약 이사 관리본부 총무실장, 안전기획부 상임 연구위원, 국회의장 수석비서관, 금융증권일보 부사장, 자유신문 편집위원, 제천향우회 창립 초대회장을 지냈다.

농고, 육군사관학교 전신인 육군호국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952년 태양신문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투신한 고인은 그후 경향신문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시사통신 민족일보 대한일보 정치부장을 역임하다

김명구 선생님 영전에

정운종(본회 상임이사)

먼저 선생님의 가심에 삼가 명복을 빌며 졸지에 상을 당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과 저는 사실 늘 분신과도 같이 행보를 같이 해 왔습니다. 제천향우회를 창립 하시어 고향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실 때 제가 사무국장으로 향우회보를 창간한 이래 아직도 그 편집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 이 보다 더 진하고 끈끈한 인연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언제나 저를 고향의 친동생처럼 사랑해 주셨고 언론계 대 선배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대한언론인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모범회우이고 신문기자 출신으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직종을 편력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고 번뜩이는 창의력과 탁월한 업무추진 역량이 돋보여 팔방미인처럼 중용되곤 했습니다. 연합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시사통신 정치부장, 대한일보 정치부장, 민족일보 정치부장인가 싶으면 어느새 재무부 공보관, 안전기획부 상임연구위원, 한국화약 중역으로 활동하신 행적이 이를 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으로 명쾌한 솜씨를 보이셨는가 하면 한때는 신문에 충북지사로 하마평이 자자했지만 결국 다시 언론계로 컴백해 금융증권일보 부사장으로 정열을 불태우셨던 선생의 행적은 일면 한국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찬이 아닐 듯합니다.

돌이켜 보면 선생님의 한평생은 엄격하신 춘부장의 한학을 전수하시고 8·15 광복전 한 시대를 사시면서 나라 잃은 아픔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경험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30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신 선생이 선린상고와 제천농고를 번갈아 가며 다니시다가 육군호국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신 것도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정국과 무관하지 않



조문하는 본회 홍원기 회장.

을 것입니다.

1952년 태양신문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하신 선생이 언론계에 몸담으시는 동안 선생은 남다른 정의감으로, 6·25 한국전쟁 직후의 격동기엔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이 나라 자유언론 창달에 열정을 쏟으신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선생께서 자유신문과 민족정론 편집인으로 친북 좌파 종북주의자들의 경거망동을 준엄하게 꾸짖으신 것도 선생이 얼마나 반공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셨던가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정의감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대한일보 정치부장 때 경영주가 일방적으로 정치부에 발령한 K모 기자를 비토 했던 사실은 두고두고 언론계에 회자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후배들을 아끼고 돌봐주셨던 자상한 형님과 같으셨던 선생의 값진 삶은 모든 후진들에게 오래토록 귀감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신앙심이 또한 두터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술이라곤 한 방울도 드시지 않으셨고 담배 또한 멀리하시어 건강 또한 타고 나셨다는 평을 들으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졸지에 가시는지 우리 나이 82세면 요즘 시쳇말로 팔팔하실 춘추가 아닙니까. 형님처럼 다정다감 하였던 언론계 대 선배님, 남다른 고향사랑으로 존경을 받으셨던 선생님. 언제 봐어도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들을 대해 주셨던 선생님! 아무쪼록 후고의 염려를 훌훌 떨쳐 버리시고 모든 번뇌도 아픔도 없는 저승에서 부디 영생극락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인터넷신문 창간



김용발 회우 = 1월 12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6번지 정우빌딩 318호실에서 (주)메디팜헬스 뉴스를 창간하고 발행인겸 대표이사직에 취임했다. 전화 02-701-0019 팩스 701-0350

광고주 대표와 간담회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회우=1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광고주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광고 규제완화와 광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광고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포폴리즘 추방운동 고문



제재형(본회 고문) 회우=1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 포폴리즘 추방 국민운동 본부' 창립 대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됐다.

미국 뉴욕세계지국장회의 참석



한영도(미 CBS 서울지국장)회우=뉴욕에서 열리는 CBS 세계지국장 회의참석차 1월 28일 출국, 2월말 귀국 예정.

신임회우 환영합니다



게창호(桂昌鎬)

1936년 12월 30일생
한국일보 기획위원 편집국장, 조선일보 문화부장, 경향신문 문화방송 신문담당 이사 북한연구소 소장(현)
서울 용산구 후암동 339-4 장우오피스텔 530호
전화 02-319-9991 010-2367-0081



권영빈(權寧彬)

1943년 1월 8일생
중앙일보 출판부장 논설위원, 주필, 편집인(부사장) 발행인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현)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B동 1009호
전화 031-231-7201



안상현(安相鉉)

1936년 5월 16일생
기독교방송임사 편성부장 편집부장 보도부국장 대구국장 기독교방송사우회 회장(현)
서울 과주 교하읍 문발리 547 주공 아파트 218-201
전화031-939-4148 010-4755-4048

언론사 社友會 소식

국민일보

국민일보 전직사우회 모임인 국민일보미디어클럽(KMC)은 지난 1월 6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오션패밀리 뷔페에서 신년하례 및 KMC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규섭 부회장(본보 편집위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하례식에서 함정훈 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우들 찾기 운동으로 회원들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KMC언론상은 올해가 세 번째로 시상 대상을 넓혔다. 수상자는 주말섹션 And팀(태원준 팀장 등 7명), 경영기획실 이신학 과장, 광고마케팅국 김재수

대리 등이다. 이날 하례식에는 이대영 부회장, 이용권 김종열 이사, 설임운 회우 등 본회 회원이 참석했다.

KBS

KBS 사우회(회장 김수웅)는 1월 21일 오후 3시 KBS신관 홀에서 KBS 사우들이 재직시절의 방송 제작기와 현장체함을 엮은 '그때 그시절-KBS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그때 그시절 KBS이야기'에 기고한 본회 회원은 최창봉 명예 회우를 비롯, 김성배 부회장, 김인규 KBS 사장, 김 현, 서병주, 윤재홍, 호천웅 회우 등이다.

2월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축하는 이번호로 끝냅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일 정진석 박범진 송형목.
2일 이종기 맹태균 정원복 정기정
3일 김기원 김중헌 이학주
4일 김호곤 박진열 진철수
5일 조두흠 김인규 최중수
6일 노영순 김정기
8일 신대근
9일 강명수 김 화
10일 도준호 지갑중 이정운
11일 김성순 박경석
12일 이민희
13일 이우진 홍승국 이종전
14일 정회준

15일 임병학 유무정 김의수
16일 유용현
17일 김재일
18일 정대수 조덕동 호천웅
19일 박명근
20일 윤임술 이광영 김두호 김은구 나필성
21일 주종환 계성일
22일 김춘빈 안종우
24일 김정훈
25일 은종일
26일 정형수 최일영
28일 이민섭
29일 김관태 우경식

박기병 회우에 공로패 증정 大韓言論會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는 지난 1월24일 박기병 본회 발전기획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에게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증정했다. 박 위원장은 1958년 언론계에 투신한 후 정치부 기자, 방송경영인, 그리고 한국 기자협회 회장등을 역임하며 자유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공익광고 협의회 위원장 위촉 조창화 본회 명예회장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사장 양휘부)는 본회 조창화(73세) 명예회장을 2011년도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수준 높은 공익광고가 제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공익광고협의회 의회의 공익광고 30년 전통을 발전적으로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은 조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광고계, 언론계 등 각계



양휘부 공익광고공사 사장(오른쪽)으로부터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 위촉장을 받는 조창화 본회 명예회장.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됐다. 1년간 공익광고 캠페인의 효율적 운용과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한-라오스 우의증진 만찬 윤익한 본회 상담역

게오라 주한 라오스대사는 지난 연초 서울 타임즈 회장으로 있는 윤익한 본회 상담역을 한남동 대사관저로 초청, 라오스 전통음식으로 마련된 만찬을 베풀고 서울타임즈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윤익한 상담역원쪽이 라오스 대사와 건배를 하고 있다.

▶ 연회비 납부 ◀ 납부계좌 : 농협 056-01-105628

2008년 이환의
2009년 김병무 김충기 김해도 신동호 (34) 이환의 최상완
2010년 김병무 김충기 김해도 신동호 (34) 윤양중 이두환 이환의 최시호
2011년 고덕환 박노형 구민완 권영국 (44) 권혁만 김관태 김담구 김병무 김성배 김정기 김충기 김

휴선 김해도 맹태균 박기병 박문두 박석흥 박재권 성재삼 송호빈 신동식 신동호(34) 심의표 안현태 여구만 윤익한 이두환 이병대 이선희 이태영 이환의 이흥우 장창영 전용호 정두진 조봉균 최귀조 최시호 홍순일 홍승국
2012년 신동호(34) 최시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향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 **수출 7강, 무역대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수출 세계 7위,
무역 세계 9위의 쾌거를 달성해 무역대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서밋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非G7 국가로서는 사상 최초로 의장국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G20시대 지도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 **한·미, 한·EU FTA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미국, EU,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FTA 허브국가로 부상합니다.
- **2011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무역 역사상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기업인·근로자·정부가 모두 힘을 합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옥의 문을 열면, 한국의 아름다움이 기다립니다

팔도강산의 어떤 명소보다 깊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
오천 년 역사의 발자취가 담긴 대한민국의 전통한옥입니다
우리 선인들의 생활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 떠나는 소중한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전통한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숙박체험
지금, 당신을 향해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한옥을
숙박이 가능한 전통 문화 체험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